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GREENWAY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8993호

Monday, April 15, 2024 A

이란, 이스라엘 본토 공습 ... 미국 “반격 반대”

이란, 300발 넘는 미사일·드론 공격 ... 이스라엘 “99% 요격”
NYT “반격 공언 네타나후, 바이든과 통화 직후 계획 철회”
G7 ‘중동전 막아라’ 회의 소집 ... 이란도 “확전 원치 않는다”

권의 수많은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공격 이유를 밝혔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명명했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발사한 드론이 185대, 순항미사일이 36기, 지대지 미사일이 110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매체 ‘Ynet’은 자국군이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을 99% 요격했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지난 1일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다. 아이언돔 방공망과 미국·영국의 지원 속에 이란의 공격을 방어한 이스라엘은 일단 반격을 공언했지만, 14일 베냐민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반격 계획을 철회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 군 참모총장은 14일 공습 후 “이번 공습에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며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무력화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작전 목표가 성취됐다”고 밝혔다. 바게리 총장은 “우리는 이 작전이 종료됐다고 보며 이를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자 정권이 대응할 경우 우리의 다음 작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는 13일 밤 공습 시작 직후 성명에서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공격과 이란군 지휘관 사망 등 사악한 시온주의자 정

이란이 이끄는 반미·반이스라엘 대리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도 공습에 참여해 레바논 헤즈볼라는 골란고원에 배치된 이스라엘 방공진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예멘 반군 후티도 드론을 여러 대 발사했다.

14일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300발 넘게 발사했다”며 “이란이 발사한 지대지 미사일 대다수는 우리 방공체계가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 요격했다”고 밝혔다. 하가리 대변인은 “약간의 미사일은 영토에 떨어져 소년 1명이 다쳤고, 남부에 있는 군기지가 타격당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14일 오전 5시 이란의 공습이 끝난 것으로 보고 자국민에게 내린 대피 명령을 해제했고,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는 폐쇄된 영공도 다시 열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스라엘은 큰 피해 없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공습경보와 방공 미사일 폭음이 들려 주민들은 밤을 지새워야 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은 약 6시간여 만에 일단락됐지만, 중동의 전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최고로 치달았다.

김민정·임선영·박소영 기자
▶ 2면 ‘이란’으로 이어집니다



1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아슈켈론에서 요격 미사일이 이란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300여 기의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99% 요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란은 이날 작전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 관계기사 2, 4면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선 의식해 보복전에 불참 트럼프 “이란 도발, 바이든 나약함 탓”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으로서 동맹인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한 고민이 깊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이란의 공격 이후 이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 그는 성명

에서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공격도 방어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다”며 “적(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이 큰 피해 없이 방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하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은 네타나후 총리에게 “(요격으로) 이란 공격이 실패했으니 당신은 이기지 않았느냐”며 보복전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의 신중한 입장은 오는 11월로 다가온 미 대선과 유권자들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에나대학이 이날 공개한 조사에서 바이든의 외교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 2면 ‘바이든’으로 이어집니다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기 물반지 맞춤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이란 “이스라엘 범죄 처벌”... 중동 ‘보복의 악순환’ 우려

이란, 시리아 주재 영사관 피습 복수 군사시설 겨냥, 민간 피해 적었지만 이스라엘이 앙갚음 땀 확전 불가피 일각 “확전 피하려는 계산된 도발”

▶ 1면 ‘이란’에서 이어집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습 직후 전시내각 회의에서 “우리는 뚜렷한 원칙을 결정했다”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은 누구든 해칠 것”이라고 보복 입장을 밝혔다. 현지 채널12 방송 등은 “이스라엘 전쟁 내각이 이날 이란의 공격에 대한 ‘전례 없는 대응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보복 공습을 규탄하면서도 확전을 막기 위해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전쟁 확전을 경계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습 후 “이란과 그 대리인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양국의 약속은 철옹성 같다”고 강조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보복을 억제하기 위해 애를 썼다.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



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역내 다른 국가들의 공동 방어 노력 덕분에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면서 “당신은 이기지 않았느냐. 승리를 가져가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세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 후 15일(한국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외교적 대응에도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가 대규모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확전 여부는 이스라엘의 보복

에 달렸다. 만약 양측 간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이란의 공격을 놓고 “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이란의 계산된 도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점령 정권(이스라엘)의 지지자들은 이란의 책임 있고 비례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해야 하며 시온주의자 정권에 대한 맹목적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게리 참모총장도 “이번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군 외에 인구·경제 중심지는 목표로 삼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세인 아미르몰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테헤란 주재 대사들과 만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미국에 자국의 대응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스푸트니크통신에 따르면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확전이나 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김민정·임선영·박소영 기자

“미국, 중동 확전 원하지 않아... 긴장 고조 이유 없어”

백악관은 14일 미국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NBC, ABC 등 방송에 출연해 전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 “이스라엘의 대응은 전적으로 그들에 달렸으며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으며 중동에서 긴장 고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에서 확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격에 참여하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커비 보좌관은 또 “어젯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방어에 있어 엄청난 능력을 확인했다”면서 “이스라엘은 또한 고립되지 않았으며 우방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어제 확인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몇 시간, 며칠 동안 벌어질 일이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어떤 반격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전하지는 않겠다”며 “그들은 어젯밤 좋은 대화를 나눴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것이 주된 메시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에서 확전 및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어젯밤 성공(적 방어)을 축하했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철옹성같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BS 방송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확전 반대 입장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과 갈등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네타냐후 총리는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7일(하마스)의 공격 이후 확전 방지를 위해 모든 일을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최근 수일 동안 지중해

동쪽에 추가적인 함선 및 전력을 배치했으며, 이것이 전날 바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스라엘과의 추후 논의에 대해선 “실무진 단위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바라건대 이번주 안에 확장된 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폭스뉴스에서는 중동에서 중국의 역할과 관련, “물론 우리는 중국이 이란에 대해 압박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중국 역시 중동에서 지도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 발목이 잡힌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예산안에 대해선 “조속히 움직여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의회에 처리를 촉구했다.

▶ 1면 ‘바이든’에서 이어집니다
부정적 의견은 바이든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이스라엘 지원 여론이 악화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와 각을 세우며 후진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한 무슬림들이 집단적인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아랍계 표심 이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아랍계 미국인은 대선에 격전지가 될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주 등에 집중 거주하고 있어 접전이 불가피한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확전 가능성을 공세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바이든의 나약함 때문”이라며 “내가 집권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16일(화) 76~57	19일(금) 69~55
17일(수) 70~60	20일(토) 68~54
18일(목) 74~53	21일(일) 62~47

4월 15일(월) 82~56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밝고 밝고 건강하게 열린 헬스케어가 함께 합니다.”

메디케이드 롱텀서비스 (MLTSS) 그룹 홈 어시스트 리빙 (양로 호텔) 2024년 하반기 오픈 예정

www.vaohc.com

케어가 필요한 시니어 부부를 저희 그룹 홈으로 모십니다.

문의 및 안내 info@vaohc.com 대표: 김종훈
Fax: (571) 487-8751 Mobile: (703) 268-0107
Office: (703) 280-0910

“나 알고, 상대방 포용해야 관계 성공”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이하 코윈) 워싱턴지회(회장 노명화)가 주최한 여성리더십 포럼이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소속감과 포용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주제로 상담 전문가 모니카 리 박사가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기’, 한국 MBTI 연구소 하성애 강사가 ‘MBTI를 통해 나와 다른 이를 이해하기’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모니카 리 박사는 “관계는 상호작용이며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안전할 때 연결감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리 박사는 “모든 사람들은 상호관계로 태어났고, 관계에 상처 받은 경험이 있으며, 그런 상처 또한 관계로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화난 사람을 자극하지 말고, 상대방의 불안감과 분노 등을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간단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성애 강사는 최근 “조정비결보다 정확히 개인 성격을 파악해준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MBTI’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MBTI란 Myers, 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로 개인 성격 유형 검사 중 하나다. 개인 성격 파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MBTI는 에너지 방향(외향형, 내향형), 인식 기능(감각형, 직관형), 판단 기능(사고형, 감정형), 생활 양식(판단형, 인

코윈 워싱턴지회 여성리더십 포럼 성황 모니카 리 박사, 하성애 강사 ‘열정 강연’



1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아래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노명화 회장. 2 강연중인 모니카 리 박사와 3 하성애 강사

식형) 등 4개 부문을 파악해 인간을 총 16가지 성격으로 나눴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개인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성격 유형을 찾아보고 각각의 특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애 강사는 “MBTI로 파악한 성격은 타고 난 것이지만,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개인의 인격은 성숙해 진다”고 말했다. 하 강사는 “성격과 인격의 차이를 인정하고 관계와 소통

에 최선을 다한다면 삶이 풍요로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을 개최한 노명화 회장은 ‘코윈 워싱턴 지회는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포럼을 통해 한인 여성들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미주 한인 역량 증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워싱턴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20~70대 한인여성 50여명이 모였다.

박세용 기자

워싱턴 주택판매 11.5% 감소

리스팅 줄어 가격은 상승 VA 페어팩스 중간가격 74만불

주택 거래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지역 리스팅 업체 브라이트 MLS에 따르면, 지난 3월 워싱턴 메트로지역 주택 판매량은 3707채로 전년동월 대비 11.5% 감소했다.

실제 시장에서 기능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4% 증가했으나 3월 신규 리스팅은 전년동월 대비 11.4% 부

족해 여전히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간 주택 판매가격은 59만9990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0.1%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률은 2022년 2월 이후 가장 높았다. 3월 리스팅 중간대기기간은 7일로 전년동월 대비 2일이 짧아졌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중간주택판매가격은 73만9999달러, 라우든 카운티는 75만달러,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는 59만달러, 워싱턴DC는 64만달러 등을 기록했다.

김욱재 기자



1 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 김응권 회장이 이용대 선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있다

배드민턴으로 미주한인 하나됐다

재미대한배드민턴협회 제1회 전국대회 NJ서 개최

재미대한배드민턴협회(회장 김응권)가 이용대 배드민턴발전협회(미주법인 회장 마이클 이)와 함께 제1회 전미주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뉴저지 파인브룩 국제 배드민턴센터에서 열린 대회는 뉴저지배드민턴협회(회장 존 백)이 주관한 가운데 버지니아, 워싱턴DC, 메릴랜드를 비롯 뉴욕,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에서 3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대회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가 직접 참석, 특별 이벤트 경기 등을 진행해 미주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차세대 꿈나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용대 선수는 “대한민국은 물론 미주 한인 배드민턴 유망주 발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를 성공으로 이끈 김응권 재미대한배드민턴협회장은 “앞으로 대회를 이어갈 것이며, 한인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용대 선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격려했다.

>문의: 301-580-7711(김응권 회장)

김윤미 기자

영킨 주지사, 153개 법안 거부 ‘신기록’

글렌 영킨(사진) 버지니아 주지사가 법안 거부권 신기록을 작성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번 정기회기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 1046개 중 15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존 기록은 테리 맥컬리프 전 주지사, 4년 누적 거부권 법안이 120개였다. 영킨 주지사는 777개 법안에 서명했으며 116개 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요구했다.

영킨 주지사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알렉산드리아 프로구단 경기장 지원법안을 무산시키자 최저임금 인상법안과



마리화나 소매판매허용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산안 중 민주당 핵심 의제 사안에 대해 수정의결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의회와 행정부 소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글렌 영킨 주지사가 마지막으로 수정의결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스킨머신 허용 법안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영킨 주지사의 이같은 행보를 비난했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초당적인 법안에 대해서도 영킨 주지사가 수정의결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했다.

김욱재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픈회제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 **571.405.6540** | 7799 Leesburg Pike
www.alexkwakesq.com | alexkwakesq@gmail.com |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관계 돈독했던 이란·이스라엘 ... '이슬람 혁명' 이후 틀어졌다

(1979년 이란)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돈독한 편이었다. 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이란은 50년 정식 국가로 인정했다. 주요 이슬람 국가 중에선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 승인이었다.

유럽에 망명 중이던 친미 성향의 무함마드 리자 팔레비가 53년 친위 쿠데타로 '샤(왕)'에 다시 오르면서 양국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정식 수교는 하지 않았지만, 영사관을 두고 텔아비브와 테헤란을 잇는 직항편을 운항했을 정도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란을 비아랍권 국가로 분류하고 우호 세력으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요르단·시리아·레바논 연합군과 치른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1967년) 이후엔 석유의 상당 부분을 이란에서 수입했다.

유럽으로 수출하는 이란산 석유를 보낼 송유관과 항만 시설을 운영하는 양국 기업 간 합작회사도 운영했다. 급기야 양국은 '플라워(flower)'란 명칭의 탄도미사일 공동 개발 프로젝트(77~79년)까지 가동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으로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이란 정권을 거머쥐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팔레비 왕조를 축출한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적"이라고 선언하며 모든 공식 관계를 단절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란·이라크 전쟁(80~88년)이 발발하면서 양국 간 군사 밀월이 시작된다. 당시 이라크의 핵개발을 우려하던 이스라엘은 이란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고문관을 파견했다.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석유와 함께 이라크 군사시설과 관련한 상당량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겉과 속은 달랐다. 호메이니 정권은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을 겨냥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까지 시키며 길고 긴 '대리전(proxy war)'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로 90년대부터 헤즈볼라의 대이스라엘 테러가 시작됐다. 29명이 숨진 아르헨티나의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92년)를 시작으로 85명의 사망자를 낸 아르헨티나-이스라엘 친선협회 건물 폭탄 테러(94년)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지만, 이란은 테러 관련설을 끝까지 부인했다. 이스라엘 역시 이란 반군 세력인 이란 인민무자헤단(MEK), 준달라(PRMI·이란 인민저항운동) 등을 은밀히 지원했다.

2000년대 들어 이란이 핵개발에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암살하고, 2010년엔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까지 가했다. 2009년 이스라엘에 강경파인 베냐민 네타냐후 2기 정권이 출범하면서 양국 간 '강대강' 국면은 더 악화했다. 이란 역시 2020년부터 미국이 주도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등 이스라엘을 '중동 내 왕따'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계속 구사했다.

이 때문에 이란의 군사 지원을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기습 공격한 것이 우연이 아니란 풀이가 나왔다. 아랍국들이 공히 분노하는 지

점인 팔레스타인 문제를 도마에 올리기 위한 전략이었던 얘기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실권을 장악한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서면서 그간 추진하던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는 모두 멈춰선 상황이다. 이스라엘 내부에선 "이란이 놓은 덫에 걸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진 기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1 1968년 이란과 이스라엘이 합작 투자한 송유관. 2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이스라엘제 무기로 싸우는 이란군 병사. 3 2012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이스라엘 친선협회 건물 폭탄 테러 18주기 추모 집회. [중앙포토, AFP·연합뉴스]

영국·프랑스·독일 "이란 공격 규탄" ... 중국 "미국이 확전 막아야"

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공습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양측에 자제를 요청했다.

가장 발 빠르게 입장을 밝힌 쪽은 미국·이스라엘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편에 굳건히 서 있다"(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례 없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한 어조로 이란을 비판했다.

미국과 가까운 중동 국가들도 양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예멘·시리아 내전 등에서 오랫동안 이란과 대리전 형태의 다툼을 치러온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모든 당사국이 '최고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3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재했던 중국도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중국은 현재 사태 고조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하며, 당사자가 냉정과 자제력을 유지해 긴장 국면이 더 고조되는 일을 피할 것을 호소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영향력 있는 국가가 지역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호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란이 보복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이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확전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셈이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상황 악화를 우려했다.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는 "이번 이란의 보복 공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미 공화당이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더욱 약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 전장에서 러시아에 밀리고 있어 무기 지원이 절실하지만, 미국의 지원 패키지 법안이 두 달째 하원에 묶여 있는 탓에 무기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석유를 손에 쥔 러시아가 한층 유리해질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임주리 기자

G7정상 성명 "이란의 이스라엘공격 규탄... 긴장고조 피해야"

주요 7개국(G7·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정상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전날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을 규탄하고,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이날 영상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의 직접적이고 전례없는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명확히 규탄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성명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 국민들에게 전적인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이란을 겨냥해 "통제할 수 없는, 지역의 긴장 고조를 촉발

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안정화하고,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는 이란과 그 대리자들에게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상황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들에 대응한 후속 조

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지난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선박을 나포한 데 이어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해 무장 무인기(드론)를 대규모로 날리고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 소행으로 이란이 지목한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 7명의 군인이 사망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공격이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 관계로 돌아선 이래 처음이다.

이번 공격과 관련, 이란은 '작전 성공'을 주장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각종 발사체의 99%를 요격했다며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센터빌에서 그랜드 RE-오픈!!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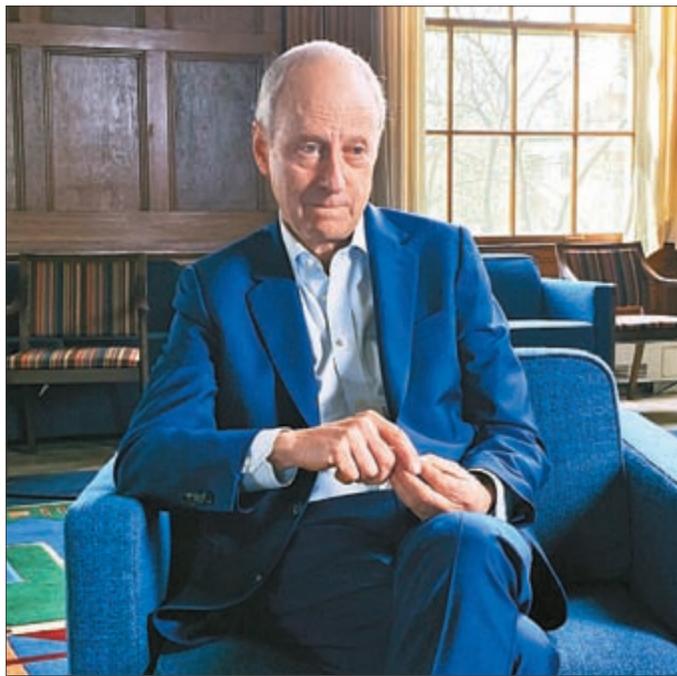
“대중의 분노 이용한 트럼프, 민주주의만 악화시켰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면 시민이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고, 정치인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톰슨홀에서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와 만나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샌델의 최신작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2023)까지 국내에 출간된 샌델의 모든 저서를 감수하고 해제를 쓴 철학자다. 이 자리에서 샌델은 “능력주의를 맹신하는 사회에서 승자는 성공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만 여기고 패자는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승자는 오만해지고 패자는 굴욕을 당연시하게 된다”며 “이런 분위기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키운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김 교수가 묻고, 샌델이 답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인터뷰
능력 중요하지만 능력주의는 위험
승자 성공은 행운도 함께한 결과
오만해진다면 대중 분노만 커질 것

정치인, 시민의 말 공감·경청 필요
‘공동선’ 고민해 민주주의 살려야



주요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건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나.

“정부에 전문가가 있고 전문성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인은 전문가만을 따라가면 안된다. 예를 들어 팬데믹 때문에 언제 학교 문을 열고 닫을지의 결정은 공동선을 염두에 두고 내려야 하는 정치적 결정이다. 보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이지만, 그 결정을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은 기술관료제의 환상이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책임있는 판단력이다.”

“정치인, 전문가 의견만 따라가선 안 돼”

-정치인의 역할이나 자질은 무엇일까.
“정치인은 시민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말을 공감을 갖고 경청해야 한다.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활용하고 대중의 말을 경청하고, 공동선을 토대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실천적 지혜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정치적 판단력이 바로 그것이다.”

-요즘 대학에서 인문학은 능력주의 경쟁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이 시대 인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교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이 철학적 고민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다. 특히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야 한다. 인문학적 사유를 갖도록 문학·철학·사학 등을 반드시 접하게 하는 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특별히 관심을 갖는 주제나 저술 계획이 있나.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과 챗GPT와 관련한 윤리적 의미,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 소셜미디어가 개인을 고립시키는 현상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왜곡된 정보의 유통,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미디어의 역할도 큰 문제다. 이런 문제를 책으로도 쓸 생각이다.”

정리=홍지우 기자

드시 필요하다. 패자도 실패가 자신의 탓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는 선택의 자유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면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전통에서는 시민적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더 지배적이었다. 시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자유롭다는 것이다. 자유는 자치와 직결된다. 미국이 추구한 민주주의가 본래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의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시민들은 공공의 사안에 대해 함께 숙고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게 된다. 타운홀 미팅이 그런 사례다. 모두 평등한 주제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다. 정치에서 시민의 토론과 대화, 공동선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요소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살리

는 길이다.”

-오늘날 정치문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시민들은 지금 무력감에 빠져있다.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인에게 들려지지 않고 중요시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적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제도와 실천 모두에서 회복돼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다시 출마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나.

“트럼프는 능력주의의 결과인 대중의 분노를 잘 포착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탁월했다. 지난 수십년 간 깊어진 빈부 격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 감정을 잘 이용했다. 트럼프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인 것은 잘 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대중의 분노의 배경에 정치 엘리트들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에, 전문가들이



마이클 샌델 교수(왼쪽)가 김선욱 교수와 지난 5일 미국 하버드대 톰슨홀에서 만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 김선욱 교수]

“능력주의 맹신, 양극화·불평등 심화시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오늘날 정치는 속고는 빠진 채 절차의 공정성만 중요시하거나 양극화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의 말싸움 자리로 변질됐다.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난 수십년 간 우리를 지배한 능력주의 문화다. 그 결과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마주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크게 약화됐고, 민주적 제도는 위기에 빠졌다. 책에서 이런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다뤘다.”

-현대 사회에서 능력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승자가 능력을 갖추고 성공한 것은 자기 노력 덕으로만 돌릴 수 없는, 많은 도움과 행운이 함께한 결과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만에 빠지는 게 문제다. 승자의 겸손이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반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L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역소용) 웨일리노래방 300m
Pine Orchard 뉴타운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타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6823; FL ML252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시드니 흉기난동 범인 40대 남성”

호주경찰 “이념살인은 아냐” 범인 최근 시드니로 이사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교외의 한 쇼핑센터에서 6명이 살해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현지 경찰은 범인이 40대 남성으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으며 특정 이념에 의한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4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의 범인이 40세 남성 조엘 카우치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우치는 퀸즐랜드주에서 수년간 영어 과외 교사로 일하다 최근 NSW주 시드니로 이사했다. 그는 범죄 전력이 없지만 과거 정신 건강 문제를 겪어 퀸즐랜드주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14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정크선의 한 도로에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을 놓고 애도하고 있다

NSW주 경찰은 확보한 정보나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어떤 특정한 동기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6명의 피해자 중 5명이 여성이라며 카우치가 의도적으로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조

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오후 3시20분께 시드니 동부 교외 본다이 정크선 웨스트필드에서 40대 남성 카우치가 3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나타났고, 쇼핑객들을 공격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우치를 쫓았고, 그가 방향을 틀어 경찰을 향해 흉기를 들이대자 총을 쏘아 살렸다.

이번 사건으로 쇼핑몰에 있던 여성 5명과 남성 1명 등 총 6명이 사망했고, 12명이 자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부상자 중에는 9개월 된 아이도 있었으며, 아이의 엄마는 카우치에 의해 살해됐다. 또 사망자 중 2명은 외국인이며 호주에 가족이 없어 대사관 등을 통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2일 텍사스 공공안전부 건물에 대형 트럭이 돌진해 벽 일부가 파손된 모습

운전면허 갱신 거부됐다고 대형트럭 건물 돌진해 1명 사망

영업용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트럭 운전사가 면허를 발급하는 관청 건물에 대형 트럭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께 휴스턴 북서쪽의 소도시 브렌햄에 있는 공공안전부 청사에 대형 세미트레일러 트럭이 돌진하면서 건물 안에 있던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치명적인 부상으로 숨졌고, 나머지 13명은 위중하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범행을 한 트럭 운전자 클레나드 파커(42)는 트럭을 몰고 이 건물에

돌진한 뒤 또 다시 들이받으려고 후진하다가 현장에 있던 경찰에 제지당한 뒤 붙잡혔다. 그는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그는 무면허 차량 이용과 체포 회피, 가중된 흉기 공격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은 파커가 범행 전날 텍사스 공공안전부에서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파커는 다른 사람의 트레일러트럭을 훔쳐 이번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그의 면허 갱신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파커가 이전에 방화와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는 MI5 책임”

2017년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생존자와 유족 250여 명이 영국 정보기관 국내정보국(MI5)이 테러를 막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 BBC 방송에 따르면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 생존자와 유족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여러 곳이 수사권재판소(IPT)에 집단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수사권재판소는 정보당국이나 법집행 당국의 공권력 행사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사법기관이다.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에서는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난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폭탄테러가 발생해 22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테러범 살만 아베디가 테러를 준비하는 과정에 MI5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간과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3월 케켈럼 MI5 국장은 “테러를 막지 못해 깊이 유감”이라고 사과



2023년 3월 한 추모객이 장미와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 조사보고서를 들고 있다

했다. MI5가 국내 테러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테러 최연소 희생자인 사피 루소스(당시 8세)의 아버지는 ‘타임스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2017년 영국은 경제 최고조였고, 자원이 충분했던 MI5는 살만 아베디에 관한 정보를 22건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교훈을 얻었다더라면 아베디가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엔 가장 큰 책임은 MI5에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컴백’에 불안?... “중국으로 다시 눈돌리는 유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과 부진한 경기 회복 등으로 유럽 일부 국가와 중국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진단했다.

중국이 먼저 ‘유럽 구애’에 나섰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5개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중국 여행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아일랜드로 이를 확대했다. 또 중국은 지난해 중단했던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2018년 취한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

자동차와 첨단 산업기계 등 서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들과 경쟁 심화로 빨이 난 유럽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민간연구소 로뎀그룹의 유럽·중국 분석가인 노아 바किन은 “EU가 중국에



트럼프 전 대통령



솔츠 독일 총리

대해 공격적인 반면 독일과 같은 유럽의 일부 대국은 우크라이나나 트럼프 문제에 더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처럼 당장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고 유럽에 보다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중국을 적대시하는 미국을 뒤따를 필요가 있는지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의 베른트 웨스트팔 의원은 “독일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국가”라며 “우리의 부는 국제시장 접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14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해 현지 3개 도시를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은 무역 관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측에서는 솔츠 총리의 이번 방문을 유럽과의 무역 긴장 고조를 완화하고 중국을 겨냥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약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은 중국산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려는 EU 계획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자동차업체들이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독일 당국자는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을 즐기고 싶지 않다”며 “중국과 무역을 늘리는 동시에 다각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령 삼쌍둥이 62세에 함께 하늘나라로

세계 최고령 삼쌍둥이인 조지 샤랄과 로리 샤랄(사진)이 62세로 별세했다. 이들은 이달 7일 펜실베이니아 대학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1961년 9월 18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여성 삼쌍둥이로 태어난 이들은 두 몸을 가졌지만, 두개골이 연결돼 있어 뇌와 필수 혈관 30%를 공유했다.

이들은 삼쌍둥이 중에서도 2~6%를

차지하는 가장 희귀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조지와 로리는 나란히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 펜실베이니아의 한 병원에서 6년간 일했다. 그 뒤 이들은 조지가 컨트리 가수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병원을 그만두고 함께 독일, 일본 등지로 공연 투어를 떠났다.

이들은 생전에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로리는 1997년 다크



맨체스터에서 “서로에게서 떠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만의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

강혜정 박사와 함께 하는 2024 봄 온라인 세미나

Anxiety to Security Transformation



강사 강혜정 Ph.D

-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역임
- 전) 이화여대, 한신대 등
- SMP(The Society of Modern Psychoanalysis) 정신 분석가
- 나무와 새 심리상담연구소 전문가 및 사례지도 감독
- 저서 투사적 동일시: 너를 들어주고 나를 내쉬다
- 공역서 현대정신분석

1강 4월 23일 (화) 오후 7시 30분 너를 들어주고 나를 내쉬다: 투사적 동일시

2강 5월 21일 (화) 오후 7시 30분 늘 은밀히 귀 기울이기: 애착

3강 6월 18일 (화) 오후 7시 30분 헛된 자기복구 시도: 중독

- 장소: Online Zoom Meeting (당일 전체 이메일로 줌 링크 올리고 초대합니다)
- 등록비: 무료 (사전 등록 필수)
- 등록 신청 링크: QR Code 첨부
- 문의: 703-761-2225 / counseling@fccgw.org



등록 QR 코드

후원:



워싱턴 가정상담소 1952 Gallows Rd. #210, Vienna, VA 22182

CUCKOO

쿠쿠 4월

더블더블 X2

프로모션



기간 | 03.27.2024 - 04.25.2024

조건 | 기간 내 주문 & 4월 내 설치

쿠쿠 시그니처 정수기 특별 대할인



일시불

~~\$1,499~~ → **\$1,399**

렌탈시

다운페이 **\$100 할인** + 렌탈료 매월 **\$10 할인**
(3년 & 다운페이 100불 구간 기준)



더블더블 특별할인

복수구매 최대 40% 할인 + 구매시 사은품 증정

사은품 증정
1개 구매 시 프라이팬, 복수구매 시 프라이팬/웍 or 오븐



*제품별로 할인율 다름

1st 구매 최대 **20% OFF**

2nd 구매 최대 **40% OFF**

*3번째, 4번째도 동일



렌탈 더블더블 할인

전제품 다운페이 \$100 할인 + 사은품 증정

다운페이 **\$100 할인**

1개만 렌탈해도 사은품 증정!
2개 이상 렌탈 시 더 많은 사은품이!



안마의자 할인

최대 \$2500 할인 + LED Mask 증정



일시불 최대 **\$2,500 할인**

렌탈시 다운페이 **\$500 할인**

사은품 증정



Virginia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하이트론즈 Centreville 571-404-4132
건강마을 Centreville 703-712-7116

Maryland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모시토라’ 대비했나... 기시다, 미국 내 일본공장 돌았다

“오늘의 우크라는 내일의 동아시아...” 바이든 ‘우크라 지원안’ 힘 실어준 뒤 도요타 등 방문하며 경제기여 강조 “대일적자 비판한 트럼프 의식” 분석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250그루의 벚꽃 묘목, 지진 피해지 노토(能登)반도의 전통 옷칠 공예품 와지마누리(輪島塗) 커피잔, 닌텐도 게임 슈퍼마리오 굿즈(기념품)...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4일 귀국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준 선물들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기뻐했을 선물은 따로 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11일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이 말을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면 동아시아도 유사한 사태를 겪을 것이라 경

고를 답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 안보 역할 확대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미·일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발언은 기시다 총리의 평소 메시지 중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민주·공화 양당에 공감대가 형성된 중국 경제론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연계한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계산이 담겼다. 중국과의 대결을 전면에 걸고 미·일 동맹 강화, 한·미·일 외교를 적극 추진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일본의 속내가 묻어났다.

그렇다고 일본이 바이든 대통령에만 ‘올인’ 하는 건 아니다. 기시다 총리는 12일 도요타자동차 배터리 공장 등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본 기업 공장을 방문했다. 일본 외교가에선 “기시다 총리가 ‘모시토라(もしと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본 기업이 맡은 역할을 설명하려 했다”는 말이 나온다. 모시토라는 일본어로 ‘혹시’라는 뜻의 ‘모시’와, 트럼프의 일본식 표기인 ‘트랑푸(トランプ)’의 앞 두 글자를 조합한 말로, ‘혹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이란 뜻이다. 재



지난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도요타자동차 배터리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본 기업 공장들을 방문했다. [AP=연합뉴스]

임 당시 대일 무역적자 등을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해 일본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 행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 야마다 시게오(山田重夫)를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등 모시토라를 대비한 ‘트럼프 라인’ 구축에 나섰다. 일본의 주미대사는 외무성 서열 2위이자 관료 톱인 사무차

관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서열 3위인 외무심의관 야마다를 발탁했다. 트럼프 재임 당시 일본 총리실 내 국가안보국 심의관이었던 야마다는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과 매일 수시로 통화했다. 2018년 트럼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북미 정상회담 판문점 개최’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

자, 반대 입장인 일본이 트럼프를 설득해 싱가포르 개최지를 변경했고 종전선언은 무산됐다. 이를 주도한 게 야마다-포틴저 라인이었다.

일본이 트럼프 재선 대비에 서두르는 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당선을 믿고 트럼프와의 관계 구축에 미흡했던 2016년 미 대선 경험 때문이다. 예상과 판 판인 결과에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외교 결례임에도 뉴욕 트럼프타워로 찾아가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를 만났다.

다만 저돌적인 스타일의 아베 전 총리와 달리 기시다 총리의 접근 방식은 신중하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의회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려 ‘검토’란 단어를 자주 써 ‘검토사’란 별명이 붙었다. 일본내에선 아직은 ‘호보토라(ほぼとら, 트럼프 재선 거의 확실)’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당분간 한 손은 바이든에, 다른 한 손은 트럼프에 내미는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도쿄=노무키 도모코 특파원

중국서열 3위와 세번 포옹한 김정은 “북·중 관계 새 장 쓸 것”

평양 방문한 자오러지와 오찬 전문가 “미 대선 앞 존재감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자오러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조선중앙TV=뉴스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을 방문한 중국 권력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세 차례 포옹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김 위원장이 자오 위원장에게 “북·중 전통 우호 협력관계를 굳히고 발전시키는 것은 북한 당과 정부의 변하지 않는 방침”

이라며 “중국과 각 영역에서의 협력과

거버넌스 경험을 교류하고 전통 친선을 심화해 북·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자오 위원장은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이웃으로 어깨를 나란히 싸웠으며, 운명을 함께하고 더불어 발전하며 75년을 함께 걸었다”고 말했다. CC-TV는 “중국의 당과 정부는 시종 전략적인 높이와 장기적인 각도에서 중북관계를 바라본다”며 “최

고 지도자의 전략적인 지도 아래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의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당·정·군 대표단 9명 집결은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통역만 배석한 채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과 오찬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 등이 참석했다.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선물도 CC-TV 화면에 노출됐다. 팔준분등(八

駿奔騰)이란 제목의 말 여덟 마리가 질주하는 조각상과 도자기, 마오타이(茅台) 30년산으로 보이는 술 상자 앞에서 크게 웃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보였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전통적 혈맹인 중국과의 밀착을 통해 ‘진영 외교’를 강화하는 모습”이라며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한편 오는 11월 미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정영교 기자

인도 총선 ‘어총모’ ... 비결은 경제성장

(어차피 총리는 모디)

인도의 총선이 19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이번이 없는 한 현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인구 14억 명인 인도의 이번 총선 유권자 수는 9억7000만 명에 이른다. 투표는 오는 6월 1일까지 44일간 진행되고, 선거 결과는 같은 달 4일 발표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인도는 이번 선거를 통해 연방하원(로크 사바) 543명을 선출하며, 다수당 대표가 총리에 오른다. 총리와 하원의원의 임기는 모두 5년으로 2029년까지다. 각종 여론조사

에선 집권 여당 BJP가 이끄는 여권 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인도 역사상 ‘3연임·3연속 다수당’ 기록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자와할랄 네루(1947~64년, 16년9개월 재임) 초대 총리만 달성했다. 이번 총선이 예상대로 BJP의 승리로 끝나면, 모디 총리는 네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현재 모디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79%(미국 퓨리서치, 지난해 9월)로, 수년째 70%를 웃돌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이갈

은 콘크리트 인기 비결로 인도 경제의 가파른 성장을 꼽았다.

모디 총리는 지난해 뉴델리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인도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7년, 인도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모디 3기엔 비(非)힌두교도, 특히 이슬람교도(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모디 총리는 지난 10년간 힌두교를 앞세워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힌두트바(힌두 근본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힌두트바가 모디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기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도 미루트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푸쉬카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모디 총리를 응원하는 지지자들. 오는 19일 시작되는 인도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로이터·AFP=연합뉴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백성호 공인회계사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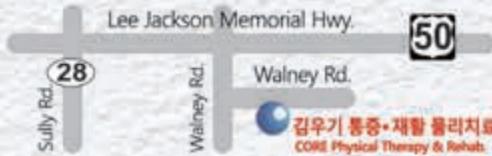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코인 20대’ 뺨치는 ‘테마주 50대’... 60대는 ‘집콕’

(부동산만 투자)

20~60대 2500명 투자전략 분석

2차전지 가고 엔비디아 오고가 싶더니 이번엔 코인입니다. 미국 주식과 코인이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라는 말까지 나오죠. 정말 나만 빼고 다 벌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요. 머니랩이 이런 궁금증을 가진 당신을 위해 또래들의 계좌를 들여다봤습니다. SM C&C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프로’를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로 500명씩의 자산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식·가상자산·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달라진 재테크 전략도 소개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놓치고 있는 트렌드는 없는지 살피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경진·하남현·황의영 기자

세대별 투자 자산
중복 응답
자료: SMC&C 틸리언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예적금	78.0%	76.1	74.8	76.3	73.3
주식	47.0	48.8	47.2	51.9	46.5
채권	9.8	12.3	11.7	9.5	10.8
부동산	10.1	15.4	27.1	26.8	31.4
가상화폐	9.8	11.8	10.0	10.9	5.9
기타	0.6	0.5	0.9	0.2	0.7



설문으로 본 세대별 성향

젊을 땐 공격적인 투자를, 나이 들면 수비적인 투자를 한다는 말도 옛말이 됐다. 머니랩 설문 결과에 따르면 예·적금과 부동산을 포함해 투자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34%가 투자 경험이 전무하고, 5년 미만인 비율도 43.8%로 가장 높았다. 이른바 투자계의 ‘초식남’(취미 활동에 열정적이지 않던 연애는 소극적인 남성)으로 불릴 만하다. 20대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면서 생겨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한 20대의 대부분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예·적금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률(78%)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그렇다고 모두가 ‘초식남’인 건 아니다. 일부 20대 남성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하고 있다는 20대 응답자 5명 중 1명(23.2%)은 월수입 절반 이상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갓생’과 ‘이생망’이라는 신조어로도 설명된다. 갓생은 하루 하루 계획적으로 성실하게 산다는 뜻이고, 이생망은 “이번 생애는 망했다”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쪽에선 청약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등을 활용해 차근차근 시드머니(종잣돈)를 마련하겠다는 청년층이 있는 반면, 한쪽에선 어차피 자산 증식이 어려우니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청년이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30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투자하고 있다는 30대 남성 응답자의 80%는 예·적금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30대 여성의 예·적금 투자 비중은 68.2%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신 30대 여성은 주식(57.4%), 가상화폐(17.8%), 부동산(20.9%) 등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가장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연령층은 50대였다. 50대는 테마주 등 주식에 투자한다는 답변(51.9%)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60대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았다. 60대 10명 중 3명(31.4%)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해 전 연령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코인 투자자 24% ‘보험용’

“난 우리 같은 애들한테 아주 잠깐 우연히 열린,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

2021년 장류진 작가의 소설 『달까지 가자』에 담긴 문장이다. 여기서 유일한 기회는 가상화폐를 뜻한다. ‘흙수저’ 청년의 코인 열차 탑승기를 담은 이 소설의 배경은 2017~2018년에 나타난 가상화폐 투자 붐이다.

2024년, 가상화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1억원 선을 뚫었고 코인 투자자의 ‘퇴사 성공기’가 재차 회자된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에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가상화폐 시장은 연령대별 투자 비중과 같은 정보를 수치로 확인하기 어렵다. 머니랩은 설문 조사를 통해 세대별 가상화폐 투자 경향을 최대한 끌어

냈다. 이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경험 이 가장 많은 건 30대였다. 30대 응답자의 33.2%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40대(26.4%)가 뒤를 이었고, 20대(22.3%)와 50대(22%)가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도 세대별 투자 경험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30대의 11.8%가 가상화폐에 투자 중이라고 답해 역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는 50대(10.9%), 40대(10%), 20대(9.8%) 순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투자 성향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20대 가상화폐 투자자는 공격적이었다. 이들 중 48.5%는 월수입의 절반 이상을 가상화폐에 쏟아붓고 있었다. 월수입의 70% 이상을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답한 비율도 15.2%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60대 은퇴 시기에 내 순자산 얼마나 될까

※2024년 3월 20~60대 2556명 조사
※부동산 포함, 순자산=자산-부채
자료: SMC&C 틸리언 프로

● 5억원 미만 ● 5억~10억원 미만 ● 10억~20억원 미만
● 20억~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상당수 20대는 향후 자산을 늘릴 기회가 많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며 “20대들이 ‘코인 대박’ 사례를 접한 영향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가상화폐가 분산 투자의 한 축으로 떠오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화폐 투자 비율이 유로 전체의 23.9%가 ‘자산 분배 차원’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 그중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츰 변하고 있는 징후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트코인이 ‘인생 한 방’을 위해 올라탈 투기 수단만이 아닌, 대체 투자처의 지위에 올라서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노후자금

한국의 ‘부동산 사랑’이 극심하다. 20~40대에게는 남의 일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60대는 ‘50~80%’(25.5%)를, 50대는 ‘30% 미만’(23.1%)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20~40대는 ‘없다’는 답이 최다였다. 특히 20대는 63.7%가 부동산 자산이 아예 없었다. 소득과 자산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부동산 편식은 나이가 들수록 심했다. 60대의 18.8%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에 ‘몰빵’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 의존도가 더 높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자자 중에선 아파트(66%) 보유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전 연령대에 걸쳐 1위였다. 50대는 무려 72.1%가 아파트에 투자했다. 아파트를 빼면

20~50대는 빌라(다세대·연립) 등 주택을 많이 샀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20대의 경우 투자자의 51.6%가 빌라(29.5%)와 오피스텔(22.1%)을 사들였다. 아파트보다 가격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0대는 토지 투자비율(14.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노후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현금화가 비교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컸다. 20~60대가 꼽은 재테크 고민 1위는 ‘이 정도로 노후 대비가 가능할까’(35.6%)였다. 하지만 고민과 실행은 별개였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20대는 18.3%, 30대는 3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은퇴와 맞닿은 60대조차 절반 정도(53.6%)만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빈곤’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이 꼽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에 그친다. 연금을 받아도 수입이 현직일 때의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사람들은 60대 은퇴 시기까지 얼마나 모을 것으로 기대할까. 20대의 35.2%는 은퇴 후 자산의 순자산이 ‘5억~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5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 답(34.1%)보다는 많았다. 이와 달리 본격적인 생활 전선에 뛰어들 30~60대는 5억원도 못 모을 것이라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높아져 60대의 경우 44.5%에 달했다.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A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I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특점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Annandale \$884,900

방4, 화장실 4, 편리한 렘블러 스타일



특점

새로 리모델한 콘도

Annandale \$209,900

새 마루, 새 페인트,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특점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735,000

Costco 동네



특점

완전 리모델한 엔드유닛 콘도

Centreville \$329,900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마루,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le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

유가 130달러·원화값 1400원 가나... '신3고' 비상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이 확산 양상으로 번지면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긴축완화를 바라던 세계 경제 전망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신(新) 3고(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런던 ICE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0.8% 오른 90.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92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 만이다. 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5월물 서부텍사스유(WTI)도 전 거래일 대비 0.75% 상승한 8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에너지 컨설팅회사 래피던 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이어진다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중동 산유국의 주요 원유 수송로로 세계 석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

국제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도 기약이 없게 됐다. 14일 오후 5시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가 전망한 6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기존 50%대에서 26.9%까지 급락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중동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위기 미국선 추가 금리 인상까지 거론 "경제 어려움 커질 것" 전망 나와 대통령, 휴일 긴급경제·안보회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다음 Fed의 조치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피벗(Pivot·긴축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서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한국도 가계와 기업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달러 대비 원화값은 연일 급락(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 대비 11.3원 떨어진 1375.4원에 거래를 마치며 올해 최저점을 경신했다. 1370원대 환율은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환율이 1400원대에 달을 경우 외환 당국이 구두(口頭) 개입식으로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며 "우리 경제와 안

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하라"고 당부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리면서 4·10 총선 이후 첫 민생 과제로 물가 관리가 떠오른 모양새다. 국제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총선 전까지 억누른 각종 공공요금 인상, 선거 기간 발표한 각종 재정 지출 정책·공약 등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줄줄이 남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물가·금리·환율 문제는 당장 정부가 손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현일훈·김남준 기자

최근 국제유가 동향

단위: 배럴당 달러, 2024년 1월 1일 - 4월 12일 기준



작년 이후 달러 대비 원화값

단위: 달러당 원



자료: 오피넷, 한국은행

“대통령, 총리·비서실장 막판 고심”... 오늘도 공개일정 없어

여권 “비서실장 원희룡 유력 맞지만 새롭게 검증 착수한 인사도 있어”

여당의 총선 참패가 부른 내각과 대통령실 개편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르면 14일 발표하던 새 대통령비서실장 인선도 미뤄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윤 대통령에게 후임 비서실장 후보군을 정리해 보고 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인사 검증 내용과 여론 추이를 살피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 후 윤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14일 중동 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유일했다. 15일에도 예정된 공개 일정은 없다.



14일 국회 보청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 앞에 22대 총선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15일) 4선 이상 총선 당선인들과 당 수송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정치인 출신을 중심으로 대상을 좁혀 나가는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 주말 사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

부 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14일 여권 핵심 관계자발로 윤 대통령이 원 전 장관을 낙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아직 정해

진 바가 없다”였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원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번 교체 인사가 총선 후 국정 쇄신 구상을 반영하는 첫 인사 조치이니만큼 윤 대통령이 끝까지 복수의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장관 외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군엔 새롭게 검증에 착수한 인사도 있다”며 이외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후임 총리로는 권영세·주호영 의원, 이주영·김부성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총리 후보

군으로도 언급되고, 주말 사이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의 이름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대학 총장급 교수 출신들도 후보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새 총리 후보는 국회 동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야권의 반감이 작아 청문회를 무사통과할 수 있느냐가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 움직임도 조금씩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홍보와 정무,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홍보라인을 비롯해 주요 부서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명칭 변경 작업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8년 전 경고에도 영남·강남에 매몰 '수포당' 얘기까지

국민의힘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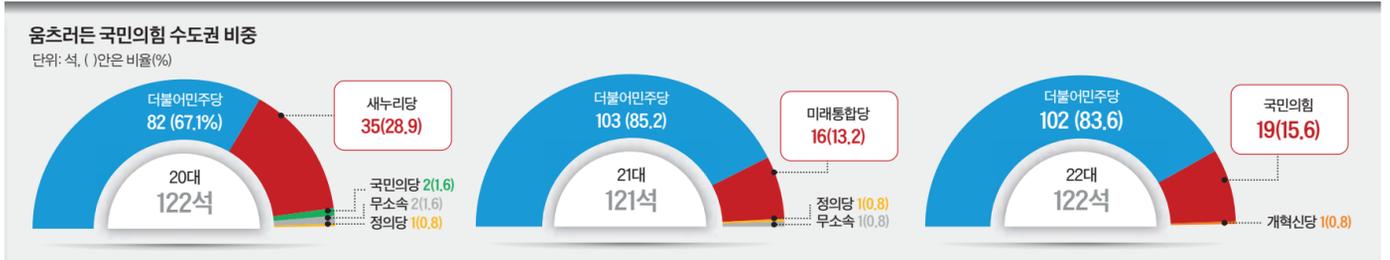
“당 지도부, 수도권 표심 이해 못해”
당선인 66%가 영남, 편중 심해져
“쇄신 없으면 수도권서 계속 완패”

‘35→16→19’.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22대 총선까지 세 차례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의석 수 변화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35석(28.9%)을 얻어 원내 2당이 된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은 야당이 되 치른 21대 총선에선 16석(13.2%)만 확보해 당세(전체 103석)가 확연히 쪼그라들었다.

집권 여당으로 치른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 의석수는 고작 3석 늘어난 19석(15.6%)이었다. 최대 승부처에서 4년 전 참패와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된 것이다. 반면에 영남 편중 현상은 더 심해졌다.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인은 59명(65.6%)으로 3분의 2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당선인 161명 중 수도권에 102명(63.4%)이 몰린 것과 정반대다.

국민의힘에선 “영남 자민련이 됐다”거나 “탄핵 국면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낙선자는 “수포당”(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란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왜 이런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을까.

지난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뒤 국민의힘에는 ‘수도권 위기론’이 크게 불거졌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 치른 선거여서 민심 풍향계로 불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면 쇄신 요구 분위기에 당시 김기현 지도부는 일부 당직자만 교체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49개 선거구 중 6개만 우세하다는 당 자체 조사에 “지도부에 사측생의 질박함이 없다”(최재형 의원)는 동요가 있었지만 지도부는 안이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다수가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직 ‘당3역’인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경남 진주갑)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김석기(경북 경주),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전 최

고위원과 이만희 전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도 영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도 영남이다.

서울의 한 낙선자는 “공천되면 당선은 때놓은 당선인 영남권과, 박빙 승부인 수도권은 차원이 다른 선거”라며 “수도권 선거를 모르는 사람이 전략을 짰는데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느냐”고 토로했다. 다른 낙선자는 “영남권 지도부는 TK 정서에 파묻혀 수도권·중도·2030 표심에 예민하지 않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뒤에도 지도부의 쇄신 움직임은 강하지 않았다. 전·현직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을 공천하는 등 ‘현역 불패’ 흐름을 이어갔고,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공약도 미흡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한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과

논란을 부추겼을 때 경험이 일천한 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눈을 뜬 채 코를 베어 가도 가만히 있었다”며 “그것이 수도권 민심이 크게 뒤집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 상당수가 양지에 속하는 ‘양남’(영남과 서울 강남)이나 비례대표를 노린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터를 닦아온 점과 대비된다.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홍익표 원내대표(서울 중-성동갑, 출마는 서초을), 김민석 전 정책위의장(서울 영등포을) 등 전·현직 당 3역이 모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함께 당선된 정청래(서울 마포을), 고민정(서울 광진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서영교(서울 중랑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최고위원도 전원 수도권 현역이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수도

권 승리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중도 표심에 촉각을 세웠고, 네거티브 전략도 그에 맞췄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보수진영의 수도권 완패 흐름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많은 의석을 민주당에 내준 만큼 조직·인물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협지”라는 패배의식이 국민의힘에 만연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통화에서 “가장 무서운 건 영남권에 고립되는 구도가 고착화되는 것”이라며 “경천동지할 만한 쇄신이 없다면 이런 상황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민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로 되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처럼 시야가 협소한 영남 일변도로 당이 꾸러지면 앞으로 재건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성·박찬·장서윤 기자

“노인·부자로 지지층 쪼그라들어”

60대 이상만 총선 출구조사 승리
서울 당선 대부분이 집값 비싼 곳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지난 10일 발표한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은 60대(민주당 34.1%·국민의힘 62.9%)와 70대 이상(민주당 25.3%·국민의힘 72.7%)에서만 더불어민주당에 앞섰다. 민주당은 20대 이하(민주당 59.3%·국민의힘 35.4%), 30대(민주당 52.8%·국민의힘 41.9%), 40대(민주당 62.5%·국민의힘 32.3%), 50대(민주당 55.8%·국민의힘 33.9%)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2년 전 대선·지방선거 출구조사와 비교하면 2030세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이 컸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대에서 48.1%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돼 이재명 민주당 후보(46.3%)를 1.8%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30대 여성 층에선 42.6%로 이 후보

(49.7%)에 뒤졌지만 30대 남성에서 52.8%의 지지를 보여 이 후보(42.6%)를 크게 앞선 결과였다.

총선 출구조사에서도 2030 남성 사이에서 국민의힘의 민주당에 대한 우위는 확인됐지만, 격차는 각각 2.3%포인트, 1.3%포인트로 줄었다.

국민의힘은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을 제외하면 한강을 따라 집값이 비싼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마포·동작구에서만 10명의 당선인을 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80.6%)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서울 내 국민의힘 득표율 상위 16개 동이 모두 강남 3구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조사된 곳은 성북구 동선동(33.7%)이었다. 국민의힘 중진은 “2030의 지지가 빠지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자와 노인, 영남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비운 대표-친윤 원내대표? ... 내일 당선인 총회, 수습책 논의

여당 전대시기·쇄신강도 논의 예정
친윤 안팎 “당 대표 비운에 넘겨도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구성 등 당 수습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에게 “오는 16일 현충원 참배 및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충격 최소화와 조기 수습만이 살길”이라는 분위기 속에 15일 4선 이상 중진 모임, 16일 당선자 총회를 연달아 열기로 한 것이다.

차기 여당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언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지’가 첫 쟁점이다.

차기 전대 시기는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 및 성격과 맞닿아 있다. 한동훈 비대위 해체 후 당내에선 “원내대표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려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6월 말~7월 초에 가급적 빨리 전당대회를 열자”(수도권 당선인)는 6

말 7초 조기 전대론이 제기됐다. 이럴 경우 새 비대위는 전대 추진을 위한 징검다리 성격의 ‘실무형 비대위’가 될 공산이 크다. 반면에 비대위를 건너뛰고 조기 전대로 직행하자는 ‘비대위 무용론’도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친윤·비운 중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다. 비운계는 2020년 21대 총선 참패 후의 김종인 비대위 전례를 들어 “전반적 당의 체질 개선을 시도한 ‘쇄신행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당명 교체,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끝에 국민의힘이 이듬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운계로 분류되는 잠정적 당권 주자들은 “빠를 짚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나경원 당선인), “국정 기조 전면 혁신과 대전환 필요하다”(안철수 당선인)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윤계는 쇄신과 국정 안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다. 친윤계 중진은 “정권이 3년 남았는데, 대통령 하

는 일에 반기만 들어서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22대 총선 당선자 중 절반 이상은 친윤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당 주도권을 비운에게 내주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원내대표 우선론’도 고개를 든다. 당장 현실로 다룰 가능성이 커진 특검 정국 등을 고려할 때 새 원내대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대야 협상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친윤계 안팎에선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은 비운에 넘기더라도, 원내대표를 사수하면 특검 정국에서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날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4선 김도읍, 3선 송석준·이철규·추경호 당선인 등 중진이 거론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중진 모임 의제 중 하나는 원내대표 선출 여부가 될 것”이라며 “중진들이 대략적 틀을 잡고 당선자 총회에서 보다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심세롬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6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페어팩스 콘도
방2+와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1,360sqft, 1985년
\$500,000

민주당 초선 73명 중 39명이 '초명'... 선명성 경쟁 예고

(친이재명계 초선)

“비명계 없이 아군... 분열 요소 없어
정치적 이슈에만 경도 땀 증도 이탈”

‘초명’(친이재명계 초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신(新)주류로 떠오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4·10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 가운데 22대에 처음 국회에 진입하는 당선인은 총 73명으로, 전체의 41.7%다.

공천 과정에서 비(非)이재명계가 대거 탈락·탈당하면서 소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의 ‘순도’는 더 올라갔다는 당내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가 전수 조사한 결과, 73명 중 ‘초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은 절반을 넘는 39명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성남-경기 라인’은 이 대표의 정책·철학을 가장 잘 파악하는 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경기 의정부)을 당선인,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을 지낸 안태준(경기 광주)을 당선인 등이 대표적이다. 윤종군(경기 안성)·조계원(전남 여수)을 당선인은 각각 경기도 정부·정책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22대 국회 첫 진입한 이재명계 사람들

성남-경기 그룹
이재강 경기 의정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계원 전남 여수 전 경기도 정책수석
윤종군 경기 안성 전 경기도 정부수석
안태준 경기 광주를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
모경중 인천 서병 전 경기도 청년비서관
김영환 경기 고양 전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 기획재정부 과 부위원장

영인인재
김남근 서울 성북을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박선원 인천 부평을 **노중면** 인천 부평갑
이상윤 전북 전주을 **김용만** 경기 하남을
이재관 충남 천안을 **손명수** 경기 용인을
이훈기 인천 남동을 **이용우** 인천 서을
황정아 대전 유성을 **차지호** 경기 오산

당대표 특보
정진욱 광주 동-남갑 당대표 정무특보
김현정 경기 평택병 당대표 언론특보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대표 특보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광주 광산갑 이재명 대표 변호인
양부남 광주 서울 이재명 대표 변호인
김기표 경기 부천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
이건태 경기 부천병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김동아 서울 서대문갑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열린 캠프(대선 경선 캠프)
이연희 충북 청주흥덕 열린캠프 전략기획실장
곽상언 서울 종로 열린캠프 지역위원장
이상식 경기 용인갑 열린캠프 지역위원장
김우영 서울 은평을 열린캠프 정무특보단장
양문석 경기 안산갑 열린캠프 지역위원장

이재명 지도부 당직
박정현 대전 대덕 현 최고위원
한인수 서울 강북을 현 대변인
김준혁 경기 수원정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박희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전 법률위 부위원장
황명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전 대변인
송재봉 충북 청주청원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이광희 충북 청주서원 전 교육연수원 부위원장
김남희 경기 광명을 전 혁신위 대변인

이 대표의 2021년 대선 경선 캠프 ‘열린캠프’ 출신 멤버들도 눈에 띈다. ‘편법 대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양문석(경기 안산갑) 당선인과 곽상언(서울 종로)·이상식(경기 용인갑) 당선인은 열린캠프에서 지역위원장을 맡았다. 서울 은평을에서 비명계 강병원 의원을 제치고 공천받아 당선된 김우영 당선인도 열린캠프 정무특보단장 출신이다.

또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변호해 온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박균택(광주 광산갑)·양부남(광주 서울) 당선인은 이 대표 변호인을, 김동아(서울 서대문갑)·이건태(경기 부천병) 당선인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김기표(경기 부천을) 당선인도 22대 초선이 된다.

이 대표가 2022년 8월 전당대회 후

구린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원외 인사들도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대변인 한인수(서울 강북을) 당선인, 최고위원 박정현(대전 대덕) 당선인 등이다. ‘막말 논란’이 불거졌던 김준혁(경기 수원정) 당선인은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정진욱(광주 동-남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은 당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영입한 김남

근(서울 성북을) 당선인 등 12명이 22대에 급배지를 단다.

당내에선 이들 중 다수를 강경파로 분류한다. 특히 성남-경기 라인과 대선 캠프 출신들의 경우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지역화폐 등을 설계·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내 드라이브를 걸며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크다.

또 대장동 변호인단은 향후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서 이어질 사법 리스크에서 ‘호위무사’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쉽게 말해 이 대표를 흔들었던 비명계 대부분이 구조 조정되고 아군만 남아 당내 분열 요소가 거의 없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확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순도 높은 이재명 체제’가 반드시 긍정적 요인으로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중진 의원은 “너무 선명성 높은 강경 노선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의회 권력을 친 이 대표도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적 성향의 재선 의원은 “친명 초선이 주도해 정치적인 이슈에만 경도될 경우 대선에선 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성지원·김정재 기자

이재명 이어 조국도 윤 대통령에 회담 요청... “원내 3당 대표로 만나길 희망”

4·10 총선 승리 이후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다퉀 회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총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는데 풀 잡하고 압박한 생각”이라며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도 지난 12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정부 출범 뒤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범야권의 총선 압승으로 정국 지형이 변하면서 정치권에선 “난맥을 풀 카드로 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는 누구와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라며 “다만 비서실장 교체 등 인적 쇄신을 모색하는 상황이라 내부 체제 정비가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여당 대표 부재도 변수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 대표가 함께 대통

령과 만나야 민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속내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회담을 요구하며 ‘협조·협력’ ‘국정을 이끄는 축’ ‘대화’ 등 비교적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에게 회담은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입증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반면에 조 대표의 회담 요청은 검찰에 총공세를 펴는 당 기조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다.

턱밑으로 다가온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강경 모드’를 재촉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손국희 기자

정선 32도 4월의 여름... 오늘 비 기온 내려

4월 중순 초여름 기온을 보인 날씨가 15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은 29.4도로 4월 중순(4월 11~20일) 기록 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도 동두천(30.4도)·이천(29.7도), 강원도 춘천(30.4도)·원주(30.1도)·철원(29.9도)·영월(32.2도)·인제(30.5도)·홍천(30.9도)·정선(32.2도), 전라북도 군산(27.5도) 등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4월 중순 기록을 경신했다. 철원과 정

선은 4월 하순까지 포함해서 가장 더운 날이었다. 이날 밤부터는 날씨가 흐려지고 제주부터 시작되는 비는 15일엔 수도권과 충남권·전라권·경남(서부)에서도 내리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15일 예상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2~18도, 낮 최고 기온은 17~21도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5~40mm, 강원 내륙·산지 5~30mm, 강원 동해안 5~10mm이다. 충청권 5~30mm와 전라권 10~60mm(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부근 80mm 이상), 부산·

울산·경남 20~60mm(많은 곳 남해안, 지리산 부근 80mm 이상), 대구·경북에 5~30mm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제주는 북부 10~50mm, 그밖의 지역 30~100mm(많은 곳 제주도 산지 120mm 이상) 비가 예상된다.

비는 대체로 1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24일까지 최저 기온은 7~14도, 최고 기온은 17~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지원 기자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분수대에서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서울, 춘천 등 중부 내륙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4월 중순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전민규 기자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 (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3 Doctores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우리말 바꾸기

가지다(갖다)를 줄여 쓰자

번역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를 가지다(갖다)' 형태가 있다. 우리말에서 잘 어울리는 다른 서술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다' '갖다'를 남용하는 것은 영어의 'have+명사'를 '가지다' 또는 준말인 '갖다'로 단순 번역하는 데 익숙한 탓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가 대표적인 예로 "Have a good time"을 직역한 것이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가 우리말에서 어울리는 표현이다. '가지다'는 소유의 개념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 두루 쓸 수 있는 단어이긴 하다. 그러나 경우를 가리지 않고 마구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문제다. '가지다' '갖다' '회답을 갖다' '집회를 갖다' '간담회를 갖다' 등은 '얻다' '하다' '개최하다' 등이 어울리는 자리에 '가지다'를 쓴 경우다. 또 "우리 회사는 많은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다" "나는 3만원을 가지고 있다" 등은 '있다'가 어울리는 자리에 '가지다'를 쓴 예다.

'가지다'를 남용하면 더욱 어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는 세 명의 가족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예로 가족이 소유물인 듯한 표현이다. "나에게는 세 명의 가족이 있다" 또는 "우리 가족은 세 명이다" 등이 자연스런 표현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미국의 세계 패권과 지정학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더 이상 시장과 자원을 놓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나중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다. 대립하던 국가들 간에 지정학이 사라졌고, 모두가 경제 개발로 눈을 돌렸다. 한국과 같은 약소국도 수출을 통해 부국의 대열에 합류했고, 1970년대 브레튼우즈 체제에 편입된 중국은 경제적으로 약을 시작했다.

이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규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이 안보를 주도하는 대신 동맹국들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는 체제였다. 미국은 이 체제를 이용해 자국의 상품을 떠넘기기보다는 동맹국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허용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미국은 엄청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냉전은 이미 30년 전에 끝났다. 미국의 안보상황이 변했고, 미국의 안보정책도 변하게 된다. 이는 세계화된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을 뜻한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과 함께 미국의 세계의 보안관 역할에서 물러나게 된다. 잃을게 없는 핵무장 국가인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 나서지 않는다. 에너지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키지도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 해로의 안전을 지켜주지

도 않는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자리잡게 된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독일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게 된다.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명무실해진 틈을 타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게 되고, 유럽 정세가 요동치게 된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한판 붙게 된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떠나면 중국과 일본이 해상 주도권과 자원을 놓고 격돌하고, 한국도 어쩔 수 없이 이 대결에 휘말리게 된다. 미국이 있는 서반구를 제외하고 동반구 전체가 안보와 시장, 자원을 놓고 싸우는 거대한 지정학의 전쟁터로 바뀌게 된다.

미국은 특히 러시아, 독일, 일본, 터키를 주시하게 되는데, 이들을 견제할 새로운 동맹 혹은 동반자 그룹을 구축하게 된다.

20년 전 국제정치의 화두가 "대테러 전쟁 Anti-Terror Warfare"이었고, 10년전엔 중국의 부상이었다면 앞으로 "미국 에너지부"가 국제정치의 최대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하루 석유 수입량은 과거 10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조만간 에너지 자급 상태에 도달한다. 세월 혁명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셰일 에너지가 세계 질서에 미칠 충격도 혁명적이다. 미국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핵심 고리 중 하나인, 에너지 유통을 보장할 이유가 없어진다.

중동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세계와 거리를 유지해도 되는 이유가 된다. 미국이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었다.

열린광장

'누죽결산'



윤재현 전 연방공무원

많은 행진곡을 들어 놓고 두 손을 들고 격식을 갖추지 않는 막춤을 춰다. 손에는 5파운드 아령을 들고, 발목에는 5파운드 모래주머니를 매달았다. 팔다리가 빠근하고 아팠다. 가끔 아령과 모래주머니 없이 율동을 하면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니어들은 팔과 다리의 근육을 단련해야 걸을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이나 수영을 가지 않는 날은 방에서 CD를 틀어 놓고 그 막춤을 춘다. 아내가 내 모

습을 보더니 깔깔대고 웃었다. 아내도 웃고 나도 웃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는가.

노인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동네 수영장에서 이 행진곡을 틀어 놓고 물속에서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듯 물장구를 친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마디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관절염이 악화하면 컴퓨터 자판도 누르기 힘들어 글도 쓰지 못한다.

행진곡 소리가 수영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줄 알았다. 웬걸, 어떤 이는 음악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춘다. 특히 '미 해병대 찬가'는 신나는 행진곡이다. 행진곡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엌의 소금도 처야 맛이 난다'고 했듯 아무리 좋은 음악과 운동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누군가 사람은 에텐동산에서 태어나 공짜를 좋아하고 게으르다고 말했다.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다는 주장이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면 게으름부터 극복해야 한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로앤피에서 3년, 심브스프링에 7년, 한미(한미)에서 10년 근무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및 챔플리(한미)와 챔플리 및 챔플리에서 각각 5년 근무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Q 탑 대학 합격자들의 공통점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문= 올 가을학기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답= 하버드대의 경우 2024년 가을학기 입시에서 신입생 지원자의 3.59%에게만 합격을 통보했다. 하버드 같은 세계 최고 명문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플래닝과 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생들은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최고 수준의 학교 성적이다. 성적만으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은 단지 기본일 뿐이다. 강력한 GPA, 특히 미래 전공 또는 자신의 패션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탑 성적을 받아야 한다. AP, IB, 아너 등 학교가 제공하는 과목 중 가장 도전적인 과목들을 듣고 최고의 성적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더 적은 숫자의 고급 과목을 제공한다고 크게 실망하지 말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도 무시할 수 없다. 올 가을학기 입시에서 8개 아이비리그 대학 모두 표준시험 점수

출은 선택사항이었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제출한 학생이 입시에서 유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일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 등 3개 대학은 2025년 가을학기 입시부터 표준시험 점수를 다시 의무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앞으로 명문대 입시에서 표준시험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본인이 가진 뜨거운 열정을 커뮤니티 서비스와 연결시킨 학생들을 높이 평가한다. 하버드대 웹사이트는 “하버드대 합격을 위한 공식은 없다. 아카데믹 레코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입학 사정관들은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리더십, 과외활동, 퍼스널 캐리커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9학년과 10학년을 관심사를 탐험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다양한 교내 클럽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패션’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11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활동이든 열정을 가지고 깊숙이 참여해야 한다.

문어발식으로 이 활동 저 활동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는 한 두가지 활동을 깊게, 꾸준히 해서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Q 이민국 주소 변경 E-COA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문= 이민국 (USCIS)이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 (E-COA) 기능은 어떤 것인가요?

▶답= USCIS가 권장하는 myUSCIS 주소 변경(E-COA) 기능은 온라인으로 주소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USCIS는 사용자가 myUSCIS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한 후에 주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USCIS는 Form AR-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E-COA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E-COA를 통해 온라인 주소 변경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불필요하게 Form AR-11을 종이로 온라인으로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 USC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계정 및 제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yUSCIS 계정이 없는 경우, 온라인 양식 AR-11, Change of Address (COA)를 제출할 수 있는 올바른 단계가 무엇인

가요?

▶답= USCIS의 How to Change Your Address 페이지에서,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Change of Address 링크가 페이지 상단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대신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Related Resources’ 탭 아래에 COA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 홈페이지에서 Forms 탭 아래의 All Forms로 이동하면 AR-11 | Alien’s Change of Address Card 링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제출을 위한 파란색 버튼

이 표시됩니다.

▶문= E-COA를 제출하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 E-COA를 제출하면 사용자의 이민국 관련 모든 주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E-COA와 관련된 각 접수 번호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USCIS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COA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정보는 uscis.gov/addresschang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자격 여부와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미국의 상속세 제도



박유진
변호사

▶문=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답= 미국의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상속될 때 그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2024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개인당 1,361만 달러 이하의 재산 가치는 상속세에서 면제된다. 개인당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액 (Estate Tax Exemption)이므로 부부라면 두 배로 적용되어 부부가 자녀들에게 상속 시에 2,722만 달러 이하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다.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2017년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6년 동안 세금 납부자들은 역사적으로 높은 상속/증여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개인당 약 5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로 면제액을 두 배로 늘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면제액 한도를 역대급 수준인 1,292만 달러로 올려놓았고, 2024년에는 2023년에 비해 69만 달러가 더 증가된 1,361만 달러만큼의 상속/증여 면제 혜택이 생겼다.

그러나 이 법안의 효력이 바이든 정

부 출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엔 쇠퇴하여 (이를 “sunset”이라고 한다) 이전 prior Tax Cuts and Jobs Act (TCJA) (조세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던 수준인 5백만 달러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절반인 7백만 달러 수준으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계속 집권한다면 현재 한도를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그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긴 하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상속/증여 통합세가 적용된다. 이를 United

Transfer Tax Rates (통합 재산 이전세율)이라고 한다.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썼다면,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면제액이 대략 \$1,300만이라 치면 각 증여인 또는 피상속인은 13장씩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부부라면 각각 13장씩으로 26장의 쿠폰을 평생 사용할 수 있다. 20장의 쿠폰을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증여 과정에서 사용했다면 6장의 쿠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때 6장 만큼 쓸 수 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친화주둔사 미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연년대표 **703-354-1515**
 2층 오픈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4월 스페셜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고급 로얄 엠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1+1

리툰 골드 비전 **\$250** 1+1 **홍삼 로얄 엠플**

리툰 골드 비전 **\$160** 1+1 **홍삼 로얄 본액**

리툰 진안 **\$36** **레드 석류 콜라겐**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신진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김요곤 침향 녹용만

내게는 최고의 보양제

\$430 \$250

이경제 황제신용단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99 \$249.99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급, 광동의 기술과 정성이 만나다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무엇 가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쓴 여주를 먹기 좋게 환으로

당뇨, 동맥, 콜레스테롤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양성/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medifree **레벤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Nutridom Collagen

캐나다산 마린콜라겐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Y 심안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

항암, 면역성 강화, 경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이름 **키즈 10** 키 10배 키우기

이름 **황성주생식**

징코크린 정

가을철 뇌기능에 빛나는 활력원천에 초포제

농협안심인 **10% SALE**

농협 **한심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디그루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양성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3+1 스페셜**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순도 100% 천연 항생제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새중 송보강

새중 속편한 새중 관절보강

공짜선물이 팡 팡

왕풍정 **홍삼** 국내최고 사포닌 8mg

풍기 **홍삼액 골드**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BP HEALTH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C. MORI

Umeken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소볼 EX / 옥마늘환 제도아리 / 제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훈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자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방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은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오미자만을 전통 발효로 진하게

혈액순환, 해독, 피로회복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유기농으로 키운 명품 수제차

불면증, 신경안정, 눈 건강, 피로회복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관절염 통증과 붓기에 도움

천연 성분으로 안전한 통증 크림

순도 1000 / 2000mg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수면을 촉진시키는 CBN 함유유용성 없는 천연 수면제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April 15,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 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한중일 동시 때렸다, 슈퍼달러 되살린 미 물가

11일 미국발 '물가 쇼크'에 불붙은 슈퍼달러(달러 강세)가 아시아 외환시장을 기습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9.2원 내린(환율 상승) 1364.1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2년 11월 10일(1377.5원)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낮다. 이달 들어 연저점을 여섯번 갈아치우는 등 원화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화폐가 치도 맥을 못 주고 있다. 일본 엔화 가치도 34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했다. 이날 미국 뉴욕시장에서 엔화 값은 장중 한때 153엔을 뚫고 153.24엔까지 밀렸다. 1990년 6월 이후 가장 낮다. 일본 통화 당국은 "필요하면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구두 개입"을 했다. 강달러에 위안화 가치도 약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1일 위안화 가치(역내환율)는 전날보다 달러당 0.0031위안 하락한 7.2370위안에 거래되며 결국 연저점을 기록했다.

이와 달리 달러값은 치솟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의미하는 달러인덱스(1973=100)는 10일(미국 현지시간) 105.25까지 올랐다. 105선을 뚫은 것은 지난해 11월 13일(105.63) 이후 처음이다.

달러 강세에 불을 댕긴 건 3% 중반대의 소비자 물가(CPI)다. 전문가들이 CPI에 주목한 것은 그동안 제품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주장한 '최근 물가 오름세가 일시적으로 튀어 오름(bump) 현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CPI는 1년 전보다 3.5% 올랐다. 월가 예상치(3.4%)를 웃돌았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4% 상



아시아 외환시장 흔들 주범

원화값, 1년반새 가장 낮은 1364원
엔화 34년새 최저, 위안화 연저점
"미국 6월 금리인하 문 꼭 닫혔다"
예상 웃돈 물가에 9월 인하론 부상

승했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은 기본이고, 주거비와 자동차 보험료, 의료비 등 소비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3.8% 오른 이유다. 탄탄한 고용과 경기지표에 더해 물가마저 들쭉이자 미국의 올해 첫 금리인하 예상 시기는 오는 6월에서 하반기로 또 후퇴했다. JP모건 자산관리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6월 금리 인하의 문이 꼭 닫혔다"고 분석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후퇴했다"며 "잠재적으로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지만, 이조차 물가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 금융시장에 반영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 3대 지수는 1% 안팎으로 하락하고, 채권값도 떨어졌다(채권금리 상승). 이날 3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

다 0.238%포인트 오른 연 4.808%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6월이 아닌 9월 기준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ed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5.7%로, 한 달 전(12.9%)보다 32.8%포인트 상승했다.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도 예상된다.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인하 시기가 속도를 당기면 원화값 하락을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상당수 전문가가 12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10회 연속 동결(연 3.5%)을 예상하는 이유다. '강달러 압력에 원화값이 138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다만 '한국 수출 개선으로 점차 원화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있다.

연지현·이아미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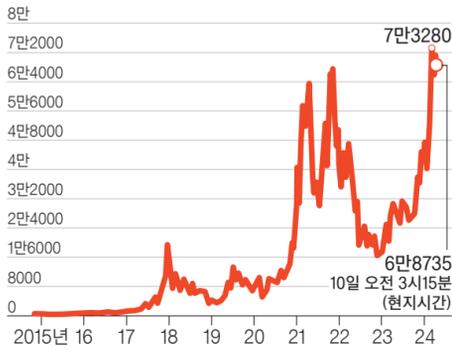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www.rowepllc.com

비트코인 ETF 등 호재에도 금리 인하 지연은 복병

비트코인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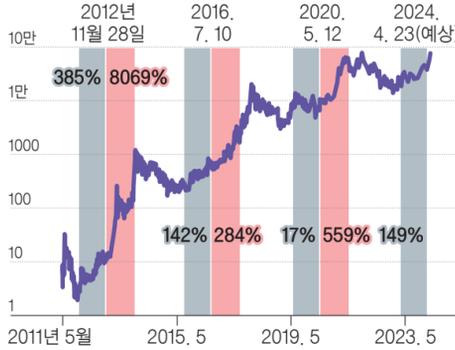
단위: 달러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 얼마나 올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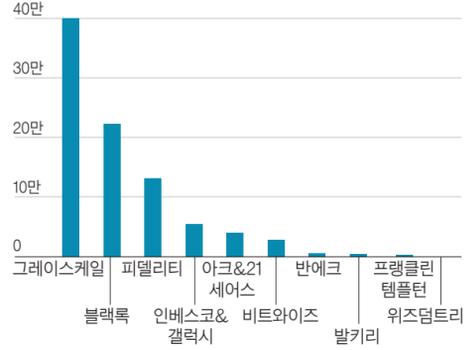
단위: 달러(로그 스케일)

반감기 1년 전 1년 후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보유량

단위: BCT, 추정치



5조2000억 달러(약 7041조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가 예상하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다. 갈링하우스는 지난 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 가치가 두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6000억 달러(약 3520조원)다. 갈링하우스의 전망대로라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5조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CNBC는 예상했다.

혹독한 겨울을 견딘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왔다. 2021년 3조 달러(약 4062조원)를 웃돌았던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장기 약세장)’가 도래한 2022년 8300억 달러(약 1124조원)까지 감소했다. 그렇게 암흑기를 보낸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1월 1조8600억 달러(약 2518조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제는 크립토 윈터 국면을 넘어 전환점에 섰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3월 비트코인 거래액, 1경2321조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건 대장인 비트코인이다. 지난 1년 동안 140% 이상 오르며, 지난달 14일 7만3797달러(약 9992만원)로 사상 최고 가격을 찍었다. 이후 지루한 7만 달러 공방전을 벌이다 지난 8일 다시 7만2000달러(약 9749만원) 고지를 밟았다.

비실대던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을 받게 된 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등장하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며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다. ETF를 통한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영역에 발을 디디며 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는 길이 열렸다. 거래는 급증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업체인 CC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금액은 9조1000억 달러(약 1경 2321조원)를 기록했다. 현물 거래금액은 2조9400억 달러(약 3981조원)로 2021년 5월 이후 월간 거래액 최대치를 넘어섰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시장의 판도를 바꿀 메가톤급 변수다. 자산배분 펀드나 퇴직연금 등 상당한 잠재 수요가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의 자본 유입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어서다. 갤럭시 리서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으로 올해 144억 달러(약 19조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하며, 투자 여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의 약 10%가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비중을 1% 가량 할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암호화폐 전문 금융서비스 기업인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 CEO는 지난달 26일 실적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 약 80조 달러(약 10경 8320조원)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보그라츠는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베이비붐 세대의 막대한 자금은 암호화폐 채택률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 보인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향한 자본 유입 통로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과 영국·홍콩 등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이후 비트코인 커버드콜 ETF 등 다양한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인 낙관론도 등장했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비트코인 투자자의 날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금융 슈퍼고속도로 비유하며 향후 350만 달러(약 47억원)를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투자자가 더 많이 진입할 경우 수확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슈퍼장밋 전망에도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150만 달러(약 20억원)부터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긴 했다.

반감기로 연간 공급량 15조 감소

ETF가 불붙인 상승 동력에 기름을 붓는 건 다가오는 반감기다. 반감기는 채굴에 성공하는 블록마다 지급되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수량을 2100만개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21만 블록마다 발생한다. 그동안 3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4번째 반감기(84만 번째 블록)는 오는 18~22일 사이로 예상된다. 이번 반감기를 거치면 하루에 채굴되는 비트코인 개수가 900개에서 450개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감기 이후 채굴량 증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다.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요인이다. ‘반감기=가격 상승’의 공식으로 이어지는 건 학습효과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세 차례 반감기를 거

치며 비트코인 가격은 12~18개월 이후 단기 고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1월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단기 고점이었던 2013년 12월까지 상승률은 9073%에 달했다.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 7월에서 단기 고점인 2017년 12월까지의 상승률은 2883%, 세 번째 반감기인 2020년 5월에서 단기 고점인 2021년 11월까지 상승률은 688%였다.

코인마켓캡크립토뉴스는 “비트코인 가격을 7만 달러 수준으로 가정할 때 이번 반감기 영향력은 달러 기준으로 3배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이라며 “하루에 약 3200만 달러(약 433억원), 연간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하는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예정된 이벤트인 데다 그동안 누적된 효과로 인해 상승 폭은 이전 반감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감기가 약 4년 간격으로 33번 일어난다는 건 비트코인 탄생 시점부터 예정된 만큼 시장은 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 93.75%가 채굴될 예정인 만큼 기존 유통량과 비교해 채굴 속도 변화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으로는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P모건에 따르면 반감기로 채굴 비용이 배로 늘어나게 되는 만큼 채굴업자 중 생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장비가 비효율적인 기업은 반감기 이후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고 헤시레이트(채굴 속도)가 20% 하락할 수 있다.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채굴업체가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

을 선제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만큼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헤지 가능한 중립 자산

비트코인 상승세가 불을 붙인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험 헤지를 위한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재정정책과 신용 및 지정학 위험과 관련해 헤지가 가능한 금이나 비트코인 등 중립적 성격의 자산이 부각하고 있다”며 “신용주 중심으로 가상자산 채택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도 암호화폐 투자자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벤트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 23일 SEC의 심사에서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향후 미국의 정권 교체 여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중국도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나섰던 중국이 홍콩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을 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다.

하현욱 논설위원

▶ 4면 ‘암호화폐’로 이어집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손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식당 자리 6,408 SF, 엘버나 메릴랜드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시는 분 5000-8000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리빙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근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잇마쉬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단독 건물 백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적합,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순수의 52만불, 8백만불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갤럭시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 찾습니다	주책
		콘도 방2, 화장,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주책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랭킹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부동산 전문 소식지

60세면 IRA로 '롤오버', 투자 옵션 고려

401(k) 관리 노하우

401(k)는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은퇴플랜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주들도 세제 혜택과 직원 배니핏을 위해 401(k) 플랜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401(k)를 통해 투자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 번 셋업하거나 투자를 시작한 후에는 잘 돌아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냥 잊고 지내도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단지 시장의 등락에 따른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투자 옵션이나 비용,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은퇴플랜과 비용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 플랜을 이용해 은퇴투자를 하는 직장인들은 비용에 대해 무감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401(k)를 하는 직장인들의 70%가량이 비용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으로 조사된 적도 있다. 요즘은 상대적으로 계층이 많이 된 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401(k) 플랜의 비용에는 우선 플랜 자체의 유지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이 있다. 여기에는 해당 플랜을 셋업하고 교육, 안내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문사나 어드바이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투자에 활용되는 펀드의 비용이다. 자산운용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도 있을 수 있다. 그 외 용자 등 기타 서비스 항목별 비용 등이 있을 것이다.

플랜 자체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은 현실적으로 직원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다. 플랜에 대해 조언해주는 자문사나 어드바이저 비용도 직원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 큰 플랜들의 경우, 사업체가 플랜의 유지 및 관리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플랜에 따라 개별 직원



직장인 은퇴 플랜인 401(k)에 빨리 가입하고 셋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용과 수익률을 조정하는 게 이롭다.

59.5세 넘으면 개인은퇴계좌 활용 자산운용 방식 변경 셋업 후에도 펀드 비용·수익률 검토, 더 나은 상품 선택 인덱스 상품, 능동 운영인 뮤추얼 상품보다 수수료 낮아 회사 매칭 혜택 최대한 활용, 전 직장 401(k)도 살펴봐야

들에게 이 비용의 일부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직원들이 부담하는 방식은 직원의 계좌에서 일정 비율만큼 플랫폼 업체들에 지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자문사나 어드바이저 비용도 비슷한 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비용 역시 별도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비용은 관련 공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플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지 및 관리 비용을 산출하는 비용이 현저히 낮아진다.

개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사실 투자옵션과 연관된 것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사용하는 펀드들의 비용이다. 보통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는 비용이 적다. 수동적인 운용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는 능동운용 펀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용비가 높다. 그리고 이들 능동운용 펀드의 비용은 펀드마다 많이 다를 수 있다.

▶ 펀드 비용 이해

모든 비용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플랜 운영과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줄여볼 수는 있다. 비용의 유형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권한 밖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비용 줄이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사용하는 펀드를 통해서다.

언급한 것처럼 능동운용 펀드보다 수동운용 펀드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비용 대비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자산운용비가 높은 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역시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은 없다. 비용이 적다는 것은 물론 큰 장점이지만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30% 이상 하락 조정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 수동운용 펀드들은 이같은 시장 리스크를 피해가기 힘들다.

결국 펀드를 선택할 때 비용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지만 유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수가 될 수도 있다. 펀드의 비용이 실제로 '가치'를 창출, 혹은 전달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때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는데 최근 수년의 수익률만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최소한 5년 이상, 가능하다면 10년 이상의 수익률을 볼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수익을 내온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이 원하는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비용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포트폴리오 구성 검토

펀드의 비용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이다.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자산구성은 전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진다.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의 구성비를 나이나 투자자의 리스크 수용 능력 정도에 맞춰 배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85%가 주식형 자산에 들어가는 것은 20~30대에게는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은퇴 시기가 멀지 않았다면 이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채권

형 자산 비중이 높다고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손실 폭을 줄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만큼 수익성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401(k) 플랜 내에서는 이같은 전통적 자산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식형 자산과 채권형 자산의 비율을 조정해주는 것이 특별한 대안은 없을 수 있다.

만약 직장을 옮겼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 IRA로 자산을 옮겨 좀 더 자신의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개인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가동할 수도 있다. 개인은퇴계좌(IRA) 포트폴리오 운용은 제한적인 401(k) 투자 옵션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다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이같은 방식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플랜에 따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에도 IRA 롤오버(rollover)를 허락하기도 한다. 59.5세가 넘었다면 플랜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필요한 만큼 롤오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연금을 활용해 보장소득을 만들거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401(k) 관리 노하우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401(k) 관련 조언 중에는 매칭(matching)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 있다. 내가 적립하는 만큼 비율을 정해 회사가 추가 적립해주는 혜택을 말한다. 플랜에 따라 매칭 한도가 다르지만, 최소한 회사가 주는 매칭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적립금을 맞추는 것이 현명하다. 회사의 추가 적립금은 사실상 내 적립금에 대한 즉각적 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받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긴 후 두고 온 401(k)나 기타 은퇴플랜을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다. 여러 플랜에 걸쳐 있는 불필요한 비용들을 이중삼중으로 가져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비용이나 투자옵션 등을 검토한 후 회사 플랜이나 개인 IRA로 롤오버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애셋 대표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대형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지역 곳곳에 대형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란 서버, 데이터 스토리지, 통신기기 등 장비가 집약해 있는 물리적 위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시청하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마존의 북가주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영화를 보게 될 것이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서비스를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의 역사는 1940년대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서버 기능이 있는 데이터센터는 1990

년대 초반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소형 데이터센터가 5000~2만 스퀘어피트 정도로 500~2000대의 서버가 들어가는 정도고 대형은 10만 스퀘어피트에서 수 밀리언 스퀘어피트까지 된다.

중국에 있는 차이나텔레콤의 데이터센터는 그 규모가 1000만 스퀘어피트가 넘는다고 한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로 알려진 더 시티텔 캠퍼스는 네바다에 있으며 규모는 700만 스퀘어피트가 넘는다. 데이터센터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인공지능 개발로 인해 데이

터 사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전력 사용도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만큼 급등하고 있다. 경영컨설팅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전국 전력소모량 중 데이터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5%에서 2030에는 세 배가 증가한 7.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과거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은 전력 수요를 감당할 만한 대체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40% 정도 상승한 우라늄 스팟 가격도

원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따른 게 아닌가 추정된다. 전 세계 우라늄의 43%를 공급하는 카자흐스탄의 생산 차질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지만, 미국 내 새로운 데이터센터 개발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는 당분간 성장이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투자자는 관심 영역을 넓혀 그것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인프라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적인 직장인 은퇴연금 플랜인 401(k)은 일반적으로 인출과 관련해 나이 제한이 있다. 은퇴를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보다 일찍 돈을 인출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401(k) 이외에도 직장을 통해 세금 유예를 받는 은퇴계좌라면 조기인출에 대한 페널티 규정인 59.5세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외 규정이 있다. 바로 55세 규정이다.

55세 규정은 일반적으로 돈의 인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생각보다 일찍 은퇴하거나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혹은 다른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 현 직장을 떠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먼저 401(k) 플랜 문서를 검토하거나 플랜 어드바이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401(k)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

면 꼭 숙지해야 하는 55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자.

1.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 가능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하고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면 뜻하지 않게 몇 개의 401(k) 플랜을 가질 수 있다. 기존 401(k)를 현 직장의 401(k)로 롤오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몇 개의 플랜이 있게 된다. 그렇게 몇 개의 플랜을 가지고 있을 경우, 55세 규정은 단 하나의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은 55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직장의 401(k) 플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퇴직해 만 55세를 넘거나 그 이상

55세 규정은 직장을 그만두는 해가 만으로 55세를 넘어야 하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53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으로 부터 감원되었을 경우, 시간이 지나 55세가 되어

도 이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7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레이오프 되었다면 55세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페널티 없이 조기 인출이 가능하다.

3. 401(k) 플랜 자금 해당 회사 401(k)에 유지

55세 규정은 개인 은퇴계좌 IR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일을 그만두고 55세 규정에 따른 401(k) 조기인출을 이용하려면 해당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대부분 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 IRA로 롤오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리 및 펀드 수수료 비용 때문이기도 하고, 은퇴 나이가 가까울수록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55세 조기인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직장의 401(k)에 그대로 두어야 이 규정을 사용할 수 있다.

4. 새 직장에도 55세 조기인출 사용 가능

예를 들어, 55세가 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

고 조기인출을 시작했다고 가정하자. 그 후, 57세에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다시 직장을 얻고 일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기인출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단, 그 인출이 55세 때 일을 그만둔 시점의 401(k)에서 나온 것이며, 그 돈을 다른 개인 IRA로 이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새롭게 들어간 회사가 401(k)를 제공한다면, 플랜 가입도 가능하다.

5. 공공안전 직원 5년 추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55세 규정에 의해 위의 조건들이 갖췄다면 조기 인출을 페널티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안전 직원들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기사, 항공 교통 관제사 및 기타 공공 안전 직원들은 55세 규정보다 더 빠른 50세에도 조기인출이 페널티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각 지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연금부서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401(k) 55세 규정

▶ 2면 '암호화폐'에서 이어집니다

올해 2분기 홍콩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예상된다. 신영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 중국에서는 장외거래나 홍콩을 통한 우회 거래가 활발하고, 장외 거래 규모는 약 860억 달러(약 116조원)로 추정된다. 임민호 연구원은 "최근 주식 시장 하락과 주택 시장 붕괴로

중국 및 홍콩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가 높아졌다"며 "연내 홍콩을 통한 중국 본토 투자자의 자금 유입 가속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Fed 긴축 때 암호화폐 급락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부각하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고 양

호한 경기 상황이 이어지며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지난 8일 미 10년물 국제 금리는 4.424%를 기록했다. 달러 값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암호화폐에는 부정적인 흐름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풀며 긴축 완화에 나섰던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으며 돈을줄을 쥘 2022년 암호화폐 가격은 급

락했다. 가상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은 "과거 암호화폐 사이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Fed의 통화 정책과 경제 상황과 같은 거시 경제 요인이 암호화폐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고 Fed가 금리 인하를 늦추면 비트코인 가치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랄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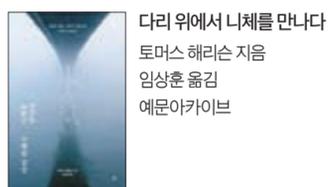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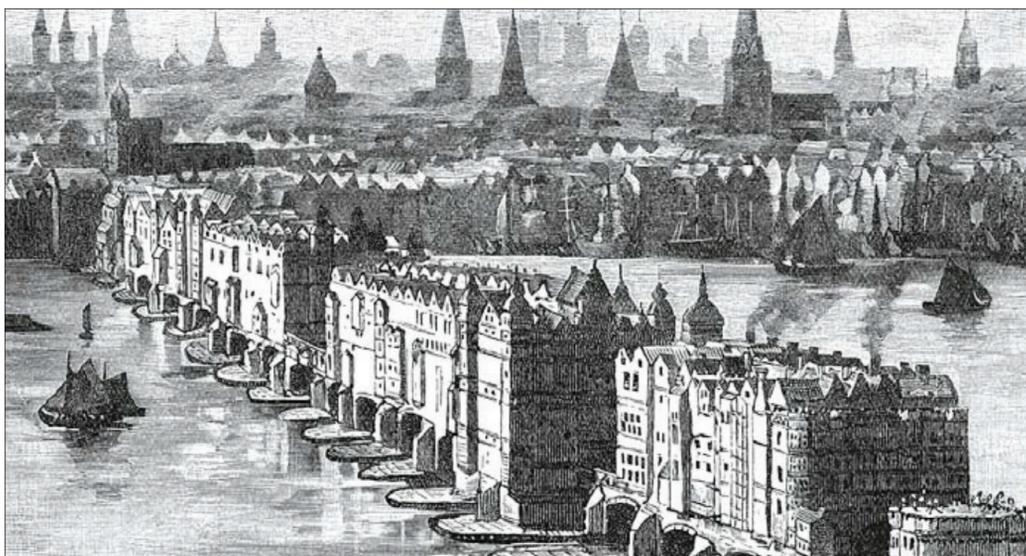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신화와 예술과 철학을 잇는 그것

녹록치 않은 계절 희망에 부푼 이유



다리 위에서 니체를 만나다
토마스 헤리스 지음
임상훈 옮김
예문아카이브



16세기 영국 템즈강의 런던 브리지 모습. 다리 위에 건물이 빼곡하다.

[사진 예문아카이브]

다리(橋)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과 주변 한강 교량이 31개나 된다. 차량 통행량만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람도 건너다닐 수 있고 지하철과 열차도 운행할 수 있다. 이처럼 다리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다. 다리에 얽힌 이야기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무궁무진하다. 『다리 위에서 니체를 만나다』는 “다리에 관한 모든 것”을 모아 놓은 책이다.

기본적으로 다리는 강이나 바다, 계곡 등으로 분리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물리적 건축물. 그런 점에서 보면 교통과 문명 교류는 물론이고 전쟁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리는 인류의 삶이나 문화와 밀접한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리는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랑과 이별처럼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이며 철학과 문학, 신화와 전설, 역사와 예술 등을 포괄하는 존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환상적인 다리는 오작교(烏鵲橋)일 것이다. 견우(牽牛)와 직녀(織女) 설화에 등장하는 전설상의 다리다. 음력 칠월칠석 밤에 까마귀와 까치가 날개를 펼쳐 견우와 직녀 두 별이 은하수를 건너 서로 만날 수 있게 만든 게 오작교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모두 전해 내려오는 설화다. 일본에선 히코보시(견우성)와 타나바타스메(직녀성)로 불린다. 이 우화는 신의 질서와 육체적 에로스 사이의 갈

등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차갑고 고요한 우주 공간을 의인화했다. 무지개라는 자연현상의 아름다운 다리도 있다. 이를 통해 신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는 상상은 북유럽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19세기 바그너의 악극 ‘니벨룽의 반지’를 통해 널리 퍼졌다.

역사에 기록된 다리 이야기도 흥미진진하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다리를 짓는 형제들’이 있었다. 개울이나 강 위에 로마와 다른 신성한 장소들로 가는 길을 만들어 순례자들의 여행을 도와줬던 사람들 이야기다. 12세의 양치기 베네제라는 이름의 소년은 1177년 아버지의 론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의 다리 건설 작업에 종교적인 후원이 쏟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를 짓는 형제회가 만들어졌다. 형제회를 세운 베네

제는 19세에 사망해 다리에 있는 교회당에 묻히고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 이후 아버님 다리를 건너는 교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교회당에 멈춰 기도하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한다.

다리라는 인공의 길이 만들어지면 자연적 방어는 취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리 입구에는 요새 같은 작은 성곽과 탑을 세우는 게 일반적이었다. 전 세계의 위험한 다리들에는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진다.

기원전 62년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로마 다리인 파브리키우스 다리에서는 투신이 잦았다고 한다. 현대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금문교 등 세계적인 다리들에서 비슷한 비극이 자주 일어난다. 바티칸에서 가까운 로마의 산탄젤로교는 성베드로 대성당과 하드리아

누스 영묘로 건너가는 다리인데, 이곳은 교회의 적으로 처형된 자들의 시신을 전시하는 장소로도 유명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도 다리와 연이 깊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입부에서 “인간은 심연 저 위, 동물과 초인 사이에 묶인 밧줄과 같은 존재다…인간의 위대함은 그가 종착지가 아니라 다리라는 점에 있다”고 썼다. 니체가 인간에게 부여한 밧줄-다리와 초인의 이미지는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해석이 분분하다.

이 책에는 그밖에 다리와 연결된 음악, 춤, 영화, 시 등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도 담겨 있다. 다리라는 공통 주제로 엮은 이 책을 읽고 나면 풍성한 인문학의 바다를 건너는 느낌이 든다. 다리 하나로 보물을 얻고 간다. **한경환 기자**



너무나 많은 여름
김연수 지음
레제

책 표지의 시원한 물 사진 때문일까. 이런 여름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홍보 피지의 문구도 노선이 확실해 보인다. “오직 이유 없는 다정함만으로”. 누구도 이렇게 착하게는 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굴어보자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앞에 현실의 여름은 녹록치 않다는 뜻일까.

작가 김연수의 새 책인데, 작심한 여름 상품 같다. 엄청난 흡인력, 이런 과거가 아니다. 오히려 ‘작품’을 남겨야겠다는 부담 없이 내키는 대로 써낸 것 같은 짧은 글 모음집인데, 알음알이 이야기도(‘두 번째 밤’) 싱거운 이야기도(‘위험한 재회’) 가슴 치는 사랑 이야기도(‘풍화에 대하여’) 있다. 대체로 픽션인데, 논픽션도 적지 않다. 독자 입장에서 내키는 대로 골라 읽으면 될 텐데, 김연수는 작품마다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해 플레이리스트(노래 목록)를 작성해 두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듣는 소셜책이다. 주말 이후 냉방 좋은 카페에라도 앉아 한 편 읽고 음악 듣는 3040 여성 독자의 모습이 상상된다.

이제부터 내용 얘기. 책 제목부터 걸린다. 통상 ‘많은’은 ‘여름’을 수식하지 않는다. ‘긴’이나 ‘짧은’이 어울릴 텐데, ‘긴 여름’은 지루하거나 고통스럽기 십상이다. 여름은 지속의 개념이지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너무 많다고 했다. 그것도 시원한 물 사진을 배경으로.

이번 여름은 고통스럽더라도 다가오는 새로운 여름들은 얼마든지 ‘최고의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다. 그런데 소설가는 긍정 전도사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 아닌가? 반전이 있다. 김연수는 표제작 ‘너무나 많은 여름’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일본의 한 철학자가 생면부지의 인류학자와 나눈, 인생의 본질을 묻고 답한 서신 교류를 소개했다. 여름을 넘기기 힘든 철학자.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난 이후 여름이 최고의 여름이 될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다고 한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게 이번 여름의 숙제다.

‘쫓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법’도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비법이 소개돼 있다.

신준봉 기자

책꽂이



검은 모나리자 (박찬순 지음, 강)=2006년 중단한 작가의 네 번째 소설집. 파리에서 곤경에 빠진 대필 작가와 길에서 만난 소년 배달부의 이야기인 표제작을 비롯해 단편 11편이 실려 있다. 헬러원 참사로 친구를 잃은 젊은이와 아버지, 코로나 중증환자와 간호사, 구의역 사고현장을 다녀온 대학생 등 현실과 접점이 뚜렷한 인물이 여럿 나온다.



라이프타임 잡 (이투데이피앤씨 편집부 지음, 이투데이피앤씨)=‘일하는 사람 평균 퇴직 나이 49세, 희망하는 은퇴 나이 73세.’ 고령화 사회가 던지는 현실과 인식의 괴리다. 3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면서 30년의 여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 퇴직 이후를 구상하는 4050에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직·창업 전략 등을 제시한다.



디지털 세대의 아날로그 양육자들 (소니아 리빙스턴·엘리샤 블룸-로스 지음, 박정은 옮김, 위즈덤하우스)=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안 될까. 코딩 교육은 해야 하나. 디지털 시대 육아는 혼란스럽다. 미디어·교육학 등을 전공한 두 교수가 영국 가정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용·균형·저항 등 ‘디지털 육아’의 세 유형을 살피며 방향성을 제시한다.



궁으로 간 최순이 (양지선 지음,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1969년 가족 한 명 없이 세상을 떠난 여성 최순이의 행적을 여러 사료를 통해 되짚으면서 진주검무의 씨앗이 된 활동을 조명한다. 1892년 무렵 태어난 그는 진주 교방을 거쳐 고종의 진연을 위해 서울로 뿔뿔히 궁중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로 대한제국이 사라지면서 낙향하게 된다.

☎ 지금 연락 주세요!

보험료가 반값! 바로 확인해 보세요~!

사업체 보험

직장상해보험

메디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건강보험

은퇴연금

703-537-9899 | 703-591-0009

👉 자동차 보험료 👈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미국 굴지의 탑 보험회사가 오퍼하는 확실한 보험”

• 저렴한 보험료 • 확실한 커버 • 신속 친절 서비스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Top Major 보험회사와의 직접연계로 확실한보장, 저렴한 보험료, 안전한 회사**

Partner 보험회사

70년 인생, 실험의 연속, 예술·기술 경계를 허물다

지난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는 두 번째 'LG 구겐하임 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대만계 미국 여성 작가 슈리칭(Shu Lea Cheang). 짧게 깎은 백발과 산뜻한 테일러드 재킷이 잘 어울리는 그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와 성별과 국적을 잘 가늠할 수 없는 시크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추구해 온 작품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



1 지난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한 뒤 트로피를 들고 있는 슈리칭 작가. 2 슈리칭의 넷 설치 작품 '베비비 플레어'(2001).



[사진 LG-구겐하임뮤지엄]

슈리칭은 인터넷이 태동하던 1990년대에 이미 넷 아트(Net Art), 즉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을 실험한 선구자다. 그 후에도 VR, 소프트웨어 디자인, 코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작품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기술적 유희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젠더와 인종 등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작품으로 심각하게 다루어 왔다.

그러나 슈리칭은 기업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일환인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취지에 무척 잘 맞는 작가인 셈이다. 양 기관은 파트너십의 취지가 "예술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대와 호흡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것이며, "사회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가치를 함께 연구함으로써

예술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상에는 트로피와 함께 1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현대미술 수석 큐레이터 주은지, 지난해 'LG 구겐하임 어워드' 초대 수상자인 인공지능 아티스트 스테파니 단킨스 등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슈리칭의 작품은 (...)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예술적 실험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 특히, 인터넷 기술 초창기인 1990년대에 '넷 아트'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구자로 새로운 도전을 향한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

한다."

1954년 대만에서 태어나 국립대만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영화학 석사를 취득한 슈리칭은 일찍부터 정보화 시대에 주변부로 밀리는 사람들 및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문제를 뉴미디어를 통해 제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 초기 활동으로 1982년부터 뉴욕의 대안 미디어 단체인 '페이퍼 타이거 텔레비전'의 멤버로 활동하며 미디어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는 공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또한 '뉴스 제작/역사 만들기: 천안문 광장에서의 라이브'(1990)에서 작가는 시위대와 군인들을 인터뷰해서 그것을 국영방송인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의 공식 보도와 나란히 배치해 어떻게 다르지 보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1980년대 말-90년대 초 보수화된 미국의 문화에 대해 1994년에 초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를 통해 동성애자 권리, 환경주의, 정부 개입 문제를 다룬 장편영화 '프레스리 킵'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화가 베를린 영화제와 뉴욕 휘트니비엔날레에서 상영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슈리칭의 선구적인 작품 중 대표적인 것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의뢰했고 소장한 작품 '브랜든'(1998-1999)이다. 이 작품은 1993년 미국 네브래스카에서 젊은 트랜스젠더 남성 브랜든 티나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성폭행과 살해를 당한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인터넷의 참여적 특성을 활용해서 네티즌들이 실시간 채팅방에서 범죄와 처벌을 주제로 토론하게 하는 한편, 브랜든의 삶과 죽음을 조명하고, 우리 모두가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다양한 성 역할과 캐릭터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작품은 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터넷 예술 운동의 분수령으로 종종 언급된다"고 구겐하임 전 큐레이터 케이틀린 존슨은 말했다.

슈리칭은 이후에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장편영화 'I.K.U'(2000)는 "공상과학 포르노"라고 불리는데, 테크놀로지 시대의 신체와 성, 유동적인 성 정체성 등을 탐구한다. 그 속편으로 구성된 'UKI, 바이러스 창궐'(2018)은 2채널 영상작품인데 2018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바 있다. 그는 또한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대만관에서 대형 멀티미디어 설치미술 '3x3x6'을 선보였다. 이는 6대의 카메라가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3m x 3m 너비 '감옥'을 은유하는 제목으로서, 소셜미디어와 CCTV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인을 다루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문소영 기자

“혈육의 연애 직관할 남매, 다섯쌍 섭외에만 반년 걸려”

JTBC '연애남매' 이진주 PD

티빙 '환승연애' 시리즈로 연애 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던 이진주(38) PD가 만남 속 '관계성'에 또다시 주목했다. 전작 '환승연애'가 헤어진 연인이라는 관계성을 끌어왔다면, 지난달 초부터 방영중인 그의 신작 '연애남매'(JTBC)는 친남매의 관계성을 녹인 연애 프로그램이다. 지난 달 29일 서울 삼당동 중앙일보 사옥에서 이 PD를 만났다.

“헤어진 연인은 연애하는 몇 개월, 몇 년 정도지만, 혈육은 제 인생 전체를 알아야요.”

남매라는 소재를 끌어온 이유를 묻자 이 PD는 이같이 답했다. “남매 조합은 전 연인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전개가 가능할 것 같아 기획하게 됐다”면서다.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병풍이 되지 않는다. 조력하든 직접 활약하든 프로그램 안에서 반드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남매

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의도를 설명했다.

“연애남매”는 10년 넘게 CJ ENM에 몸담았던 그가 지난해 JTBC로 이적한 뒤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또 다시 연애 예능 장르를 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연애 프로그램은 변주가 얼마든지 가능한 아주 넓은 장르다. 섭외 과정이 힘들지만, 흠 속에서 진주를 캐내지만 하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지기에 잘 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총 5쌍의 남매를 섭외하는 데 반년이 걸렸다. 이마저도 “운이 좋았다”고 이 PD는 말했다. “사전 인터뷰부터 대놓고 싸우는 등 다양한 남매들을 만났다. 신기한 것은 돌이 나란히 앉아 있으면 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점이

었다”면서 “이렇게 잘 자란 사람들을 대체 누가 키워냈을까 싶은 호기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출연진의 인생 서사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다. ‘연애남매’는 공개 3주 만에 비드라마 부문에서 화제성 1위(굿데이테크퍼레이션)를 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남매’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도입한 JTBC ‘연애남매’. ‘윤식당’ ‘환승연애’를 연출한 이진주 PD가 JTBC 이적 후 만든 첫 프로그램이다. [사진 JTBC]

록했다. ‘통과 제리’마냥 아웅다웅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평범한 남매부터 부모님의 이혼, 어머니의 암 투병 등 굵직한 인생사를 함께 이겨내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남매도 있다. 이 PD는 “너무 화려하거나 다른 세상 사람이면 시청자가 자신을 투영시킬 수 없다”면서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궁금해야 연애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친근감을 더하는 장치로 6mm 캠코더 영상과 사진 등 출연진의 어린 시절 자료들을 활용했다. 부모님이 출연해 남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도 한다.

고민도 있다. ‘연애남매’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웨이브에서 선공개되고, 1시간 뒤 JTBC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구독자 유입에 큰 성과를 거둔 플랫폼과 달리, 채널에선 화제성만큼 시청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 PD는 “2시간 30분 가량의 방영 시간 때문에 동 시간대 볼거리가 많은 TV에선 아무래도 이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싶다”면서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것보다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그는 연출 데뷔작 ‘윤식당’ 이후 ‘환승연애’ 시즌 1·2로 PD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이적을 결심했다. “이전 회사에 그대로 있었다면 ‘환승연애’를 놓지 못했을 것 같다. 새로운 상황에 내몰려서라도 변화와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환희 기자



이진주 PD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 필드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리스버그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PENDING		UNDER CONTRACT	COMING SOON	COMING SOON
\$670,000	\$785,000	\$800,000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은 집 지하 워크아웃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 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배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훈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s •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소걸음처럼 차근차근, 늙은 말 지혜로 한국농구 살릴 것”

(노마지지·老馬之智)

“지금 한국 농구는 백책간두가 아니라 절벽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올라오려면 불광불급(不狂不及),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어요. 우보만리(牛步萬里), 소걸음처럼 느려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마지지(老馬之智), 늙은 말이지만 노장의 지혜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안준호(67)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 감독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프로농구(KBL) 삼성 감독 시절 ‘사자성어 인터뷰’로 인기를 모았던 그에게 대표팀 수장으로서 각오를 말해달라고 했더니 역시 사자성어가 활활 쏟아졌다.

안 감독은 지난 연말 남자대표팀 감독 공모에 지원했다. 프로 감독 출신인 서동철(55) 코치와 짝을 이룬 안 감독이 최종 선택되자 “대표팀 감독이 갈 데 없는 지도자 구제해 주는 자리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불과 석 달만에 이런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안 감독은 박무빈(23·모비스) 오재현(24·SK) 등 신예들을 과감히 발탁했다. 귀화 선수인 라건아(36·KCC)를 주장에 선임하는 과격을 선보이기도 했다. 한국(세계 51위)은 2월 22일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1차전에서 호주(세계 4위)에 71-85로 역전패했다. 하지만 한때 13점 차까지 리드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25일 원주에서 열린 2차전에선 태국을 96-62로 크게 이겼다.

“남자농구 회생의 희망이 보인다”며 흥분하는 농구인들을 향해 안 감독은 “이제 첫 발을 떤 것”이라며 우보만리의 꾸준함을 강조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내 대한농구협회에서 안 감독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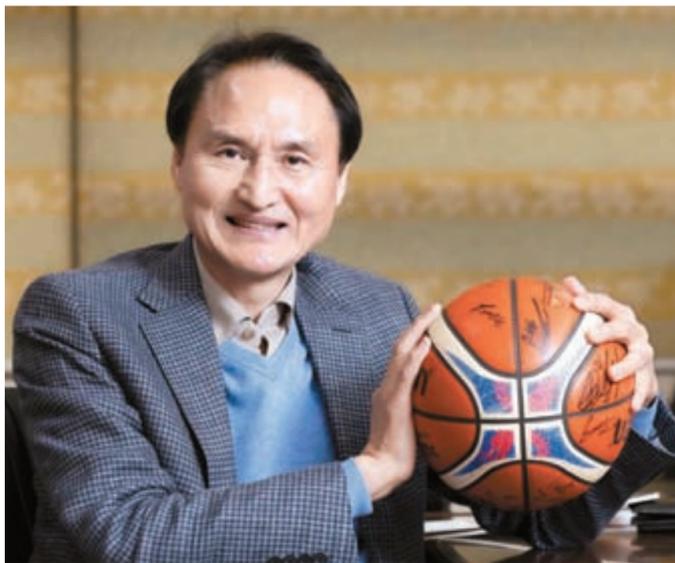
어린 시절 한학 배워 사자성어 활활

-‘원 팀 코리아’를 강조하셨는데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남자농구가 7위라는 참담한 성적을 냈어요. 그 와중에 축구대표팀 손흥민-이강인 갈등 같은 게 농구 대표팀에서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가슴에 태극기 다는 게 최대 목표였는데 지금은 프로가 생기고 스타 선수들이 부와 명예를 얻다 보니 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면 도덕적인 품위와 책임감, 대표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팀 정신이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농구 경기시간이 40분인데, 코트 안에는 항상 10명이 있어요. 단순 계산하면 한 명이 공을 만질



‘원 팀’ 깃발, 67세 백전노장 사령탑

박무빈·오재현 등 신예 과감히 발탁 아시아컵서 선전, 감독 비난 잠재워

“세밀한 속공으로 단신 핸디캡 돌파 40분 내내 폴코트 강압수비 펼칠 것”

“감독에 믿음 있으면 선수들 몸 던져 화살 제가 맞고 영광은 선수들에게”



안준호 감독이 지난 2월 25일 열린 태국과의 경기에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다. [뉴스1]

수 있는 시간은 4분이죠. 나머지 36분 동안 팀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팀 정신입니다. 수비하는 동안에는 내 마크만도 잘 체크해야 하지만 어떤 헬프 디펜스(협력수비)를 하고 어떻게 리바운드에 참여할 것인가 생각해야죠. 공격 때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해야 동료가 될 공간을 넓혀줄 수 있고, 공격을 매끄럽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팀 정신을 억지로 주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뭔가 이익이 없으면 가기를 싫어하죠. 대표팀에 가면 소속팀에 있는 것보다 열악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니 이익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선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이런 소집기간 열흘이 지나면 다시 대표팀에 온다는 보장이 없다. 오래 기억에 남을 멋진 추억을 만들어보자. 전리품을 줄 수는 없지만 젊은 시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뜨거운 장면을 만들자’고 감성적으로 접근했어요.”

-선수 선발의 기준은 뭘이냐.
“어느 조직이든 최고 명문대 출신이나 스펙 좋은 사람만으로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어요. 굳은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무빈·오재현·한희원을 처음으로 발탁했죠. 기존 대표선수들이 다 놀라요. ‘전에는 공격 잘 하는 선수만 뽑았는데 이번 코칭 스태프는 다르네’라고요. 자연스럽게 팀 정신이 생기도록 하는 거죠. 농구는 코트 안에서는 다섯 명이 하지만 12명 엔트리가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농구 색깔은?
“한국은 국제대회 나가면 거의 최단신 팀입니다. 키 작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인 빠른 스텝을 이용해 40분 내내 폴코트 강압수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른 공격 전개와 세밀한 조직 플레이로 코트를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종료 버저가 울리면 탈진해서 모두 쓰러질 정도로 뛰어야죠. 단신의 핸디캡을 때우고 한국 특유의 농구로 무장하기 위해 더 많이 준비하고 고민할 겁니다.”

안 감독은 고1 때 농구에 입문한 늦깎이이다. 피나는 노력과 근성 넘치는 플레이로 국가대표까지 성장했고,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우승 멤버가 됐다. 프로농구 삼성 감독 시절 7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고, 세 번 챔피언에 나가 한번 우승했다. 예수를 바라보는 나이에 한국체대에서 스포츠교육학 박사과정을 밟았고, 모교 경희대 강단에 서기도 했다.

“귀화선수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중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요.

“신뢰죠. 선수들은 ‘감독이 나를 도와주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몸을 던집니다. 삼성 감독 때 아무리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도 부상 중인 선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재활 잘 하고 있나’라는 말 한 마디만 해도 선수는 스트레스 때문에 회복이 늦어집니다. 트레이너로부터 ‘경기 나갈 준비가 100% 끝났습니다’는 보고를 받아야 그 선수를 불러들였죠. ‘진통제 투혼’으로 한 경기 이겼다고 해도 선수가 2-3년 후 유증으로 고생한다면 그건 감독이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죠.”

-최근 농구의 큰 변화는 뭔가요.
“농구가 다국적기업처럼 됐다는 겁니다. FIBA 주관 대회에서 엔트리 한 명은 귀화 선수를 쓸 수 있게 했어요. 농구가 미국 중심에서 전 세계로 나가려면 수준이 상향 평준화 돼야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귀화 선수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라건아를 욕구처럼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귀화를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두 그를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는 한국 농구를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모두 쏟아 붓겠다고 했다. “내년 8월에 열리는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거기서 FIBA 월드컵 티켓을 따야 합니다. 남자농구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습니다. 화살은 제가 맞고 영광은 선수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문화스포츠 에디터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긴 머리 싹둑 자른 '모던걸' 여성해방 신호탄 쏘아 올리다

(모던걸+단발)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정해진 기간마다 머리를 손질하는 일은 상례에 해당하겠으나, 정도 이상의 머리카락을 갑자기 잘라낸다는 것은 굳은 결심을 드러내거나 어떤 사태에 개입 혹은 단절을 선언하기 위한 방법인 경우가 많다.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애달픈 이별을 겪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또는 속세를 떠나 세상과 절연하기 위해.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머리카락을 가까이 자른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보통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이뤄지는 일들이다.



1924년 개벽사에서 만든 잡지 『신여성』의 창간 1주년 기념호 표지에 실린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

[사진 최용신기념관]

염상섭 등 당대 남성 지식인들 혹평

머리를 자르는 행위가 사회적 의미를 크게 지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20년대 여성의 '단발(斷髮)'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로 단발을 한 여성은 강향란으로 알려져 있다. 강향란은 한남권변 기생 출신 여학생으로 1922년 6월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나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강향란의 단발 사건을 상세히 보도한 신문 기사(단발낭(斷髮娘), 동아일보, 1922년 6월 22일)에 따르면, 강향란의 단발에는 '실연의 극복'과 '새 출발' 두 가지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남성에게 버림받은 강향란은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실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지며 단발을 실행한 셈이다. 단발 이후 강향란의 행보는 더욱 파격적이었다. 남성 복식을 차려입고 종로 구 누하동에 있는 배화학교에 나가 공부하고, 나중에는 상하이와 도쿄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다. 강향란은 단발을 통해 당시 조선에서 가장 대담하고 앞서가는 사회적 인물이 됐다.

강향란 이전에 단발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일찍이 구한말 남성 개화주의자들의 단발 시도가 있었다. 1920년대에 이르러 남성들의 머리와 복식은 서양식을 따르는 경우가 제법 흔했지만, 단발한 여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긴 머리만큼 절대 불변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됐다. 남성의 단발은 개화를 향한 의지와 모던한 취향으로 인정받

1922년 실연당한 배화학교 학생 아픔 딛고 새 출발 의지로 단발

았지만, 여성의 단발은 전통의 파괴, 도덕의 거부, 서구화에 대한 무모한 추종으로 폄하됐다.

강향란을 향해 남성 지식인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종로 출신의 작가 염상섭은 강향란의 단발을 두고 "취미성의 열화라든지 사상적 중독이라든지, 일종의 허위적 심리"가 반영된 행위이며 "죽음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견식하고 그릇된 행동"(여자단발문제와 그에 관련하여, 『신생활』, 1922년 8월)이라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단 구습과 사회 패악에 적극 맞섰던 작가 염상섭의 여성 단발에 대한 생각조차 이렇듯, 다른 남성 지식인들의 태도는 볼 보듯 뻔한 것이었다. 강향란의 최초 단발은 따가운 시선을 이겨낸 용기의 발현이자 담대한 문화적 실천이었다.

강향란 이후 여성의 단발 소동으로 또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조선공산당 여성 트로이카의 '공개 단발'이다. 1925년 8월 22일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청계천에 단발을 한 젊은 여성 세 사람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종로의 조

선여성동우회관에서 이제 막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고 나온 주세죽과 허정숙, 고명자였다. 셋은 사람들의 마뜩찮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목을 걷어 올리고 유유자적 탁족을 즐겼다. 여성이 종아리를 드러내놓고 물놀이를 하는 모습도 생소했는데, 모두 하나같이 단발을 하고 나타났으니 기가 막힌 일이었다. 이들의 공개 단발 소식은 종로를 넘어 경성 전체로 삼시간에 퍼져나갔다.

"우리 3인은 본래 동지로서 친구로서 단발하기로 작정하기는 이미 오래 일였습니다. 서로 깎기로 언약하고 곧 머리를 풀고 긴 것만 주려서 집었습니다. 자르고 나니 머리숱이 펍 많아 보였습니다. 3인 중에서 제일 먼저 자른 사람은 나였습니다. 머리를 잘리우는 그 자신은 쾌활한 용기를 내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으나 손에 가위를 들고 남의 머리를 자르는 그때는 이제까지 잠재하였던 인습의 편영(片影)이 나타나며 몹시 참담하고 지혹(至酷)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삼시간에 3인은 결발(結髮)의 신여성으로부터 단발낭자 송락(松絡)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깎은 뒤에 서로서로 변형된 동무의 얼굴을 쳐다보며 비장

하고도 쾌활미가 있는 듯 웃어버렸습니다. 웬일인지 서로 아지 못한 위대한 이상과 욕망이나 이론 듯이 무조건 기뻐했습니다."(허정숙,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신여성』, 1925년 10월호)

1920년대 여성이 단발을 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는 행위였다. '모던걸(modern girl)'을 단발과 엮어 음차해 '모단(毛斷)걸'로 부를 정도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여 신여성으로 존재의 변화를 감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다. 물론 과감하게 단발한 신여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쉽게 환영받지 못했다. '모던걸'이 '모단걸'이 되었다가, '못된 걸'에서 '못된 년'으로까지 지칭하는 방식이 격하되는 등 단발 여성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차갑다 못해 가혹할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과 여성 운동가들 사이에 단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신여성이라면 혹은 여성해방운동가라면 단발은 응당 필수적인 의례였다. 종로의 거리는 물론 경성 전역에 단발 여성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여성이 단발을 하는 표면적 이유는 "거뜰하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시원하고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단발은 실용적 목적 외에도 더 많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가부장제 하의 사회제도, 관습, 도덕 등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었다. "재래의 인습에 대한 저항"이나 "여성해방의 유일한 조건"으로 단발을 꼽은 여성 운동가들이 많았다.

여성운동가 최대의 사회적 퍼포먼스 하지만 여성의 단발을 그저 흥미로운 볼거리 정도로 격하하거나, 여전히 못마땅해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여전히



1925년 여름 단발을 한 뒤 청계천에서 탁족을 즐기는 조선공산당 여성 트로이카. 왼쪽부터 허정숙·주세죽·고명자.

다. 견고한 가부장 전통 하에서 억압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단발을 꿈꾸거나 실행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 단발이 꾸준하게 확산되거나, 보편적인 스타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종로 거리와 이화·숙명·배화 같은 학교에서는 종종 목격됐지만, 경성 전체를 보더라도 단발보다 긴 머리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단발 여성을 더욱 특별하고 앞서가게 보이게 하는 효과로 작용했다. 이렇듯 1920년대 단발은 급진적 여성운동의 상징이었다.

여성 단발은 낙후된 여성 현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여성이 제 스스로 긴 머리카락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행위는 전근대적인 면모가 짙게 남아있던 식민지 조선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됐다. 서양의 다양한 근대문화 중에서도 단발을 가장 먼저 수용한 이유는 시각적 파격성 때문이기도 했다. 전통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 한 순간에 사라진 모습을 본 당시 남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단발은 세계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 전환의 요구를 여성의 몸으로 구현한 최초의 근대적 행위였다. 단발은 오랫동안 억압된 조선 여성들이 근대적 세계와 단숨에 접속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행동이었다. 즉, 1920년대의 단발은 굳건한 조선의 가부장제에 맞서 여성 해방을 모색하던 여성운동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회적 퍼포먼스였다.

1920년대 여성 단발은 패션이라기보다 혁명 그 자체였다. 당시 신여성들은 단발 의식을 벌일 때 받은 사회적 주목을 여성해방의 자원으로 삼으려 했다. 당대의 신여성들에게 단발은 사회변혁을 이끌어내겠다는 당당한 외침이었다. 단발 의식을 통해 근대 여성의 사명과 목표는 훨씬 강력하게 동시대의 여성들에게 전파되고 공유됐다. 많은 여성 사회운동가들이 단발 행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다. 여성 단발은 전근대적 유교 풍습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자신이 스스로 신여성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강부원 근대화연구소·작가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후원 투자 리스닝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자재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Bowie</p> <p>싱글홈</p>	<p>COMING SOON</p> <p>Columbia</p> <p>싱글홈</p>	<p>COMING SOON</p> <p>Millersville</p> <p>\$559,000 싱글홈, 방3, 화4, 차고2</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화2.5</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689,000 싱글홈, 렌치 스타일 좋은 학교, 0.75 에이커</p>
<p>UNDER CONTRACT</p> <p>Cockeysville</p> <p>\$1.3Million 싱글홈, 방6, 화4.5, 차고3 Finished Basement</p>	<p>UNDER CONTRACT</p> <p>Columbia</p> <p>싱글홈, 방4, 화2</p>	<p>UNDER CONTRACT</p> <p>Millersville</p> <p>싱글홈, 방4, 화4, 차고</p>	<p>UNDER CONTRACT</p> <p>Rockville</p> <p>싱글홈, 방4, 화2</p>	<p>UNDER CONTRACT</p> <p>Cooksville</p> <p>\$449,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COMING SOON</p> <p>Elkridge</p> <p>월 \$2,800 타운홈 방4, 화3, 차고1</p>	<p>COMING SOON</p> <p>Hanover</p> <p>월 \$3,100 타운홈 방3, 화2.2, 차고2, 전채마루</p>	<p>COMING SOON</p> <p>Germantown</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4</p>	<p>COMING SOON</p> <p>Glen Burnie</p> <p>월 \$1,750 타운홈 방2, 화1</p>	<p>COMING SOON</p> <p>Hanover</p> <p>월 \$3,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p>	<p>COMING SOON</p> <p>Odenton</p> <p>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p>
--	---	---	--	---	--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er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안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이웃**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폴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소
-폴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일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일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크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홀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페어팩스 웨그망 근처 스키집 서버 구함.
하루 평균 \$250-\$350 팁 보장하고
원하시는 날 근무 가능합니다.
레스토랑이 작아 근무강도 낮습니다.
703-762-6759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물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스시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우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선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콧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 일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jumbo.food@gmail.com
전화: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일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착사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 · 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 하실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풀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가능자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틀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아난데일 홈디포 옆 위치.
넓고 밝은 3 level 타운홈, 방3, 화2+2.5
전체마루, 텍, walkout, 5월 초 입주
703-725-7871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워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3층, 방4+ 화장실 3.5.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월\$3,800
방5, 화4, 차고, 2 리버힐 학교
410-599-1800 문자요망

스포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잔디 관리, 전체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2, 반화장실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콘도 렌트>

Manassas 콘도 \$1,600 / 즉시 입주 가능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
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
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
집. 8800s.(넓은 size) Costco 가까운 동네
▶703-477-3114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CVS 근처, 지하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1300
571-243-7027 (문자)

애난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포,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난데일 한강근처 타운홈 방세눔
전화: 571-699-9707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Fairfax VA, 방1칸,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1 \$600 방2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 (문자 바람)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MD 렌함지역 조용하며 교통편리
직장인을 위한. 즉시 입주 가능함.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노바대학 근처 방렌트 (방1개)
깨끗하고 조용한 고급스러운 집
학생, 여자분 환영.
703-336-3283

노스 포트맥, NIST 근처 싱글홈 반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H-마트, 하이스쿨 각 5분 거리
방 세눔, 여자분 환영.
703-507-1180(문자 요망)

애난데일 방1, 샤워실, 출입문, 간단취사
주차 편리, 즉시 입주. 금연자
571-243-6295

DC 출퇴근 매우용이. 395 exit 근처
집앞에 펜타곤 가는 무료버스 10분 간격.
가구 가전 완비. 여성분·금연자 환영
240-477-3232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애난데일 한강근처 방, 욕실, 키친이 꾸며져
있고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구비
571-232-6052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그랜마트 6분 롯데 11분, 오레게일 본
702-622-8853

애난데일 H-mart 옆 방1세눔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능,
직장 다니는 남자 환영. 즉시 입주 가능.
703-975-0123

MD 렌함지역. 조용·교통편리, 직장인 원함.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큰방1, 작은방1
301-379-9660

애난데일 H-mart 뒤 콘도.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방 하나 렌트. 주차장 충분, 출입문 따로.
571-237-3411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 학생 직장인
703- 981-7615 (문자)

알렉산드리아 킹스타운 콘도 렌트 \$750
방1, 취사 세탁 가능, 남자분 환영
703-403-7757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단층 구조) 추천
\$495,000
1층(방3)과 반지하(방1, 화1)에 각각 방,
화장실 보유
I-66 Highway에 근접, 교통 편리한 지역
병원, 샵핑몰, 그로서리 등 근린생활 용이

1층 콘도 (시니어 생활 편리)
\$350,000
방2, 화2, 1,200 스퀘어,
여유로운 주차 환경,
저렴한 콘도피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애난데일 한강식당 뒷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렐름버스터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PG 카운티에 위치
-경비 제한이 없는 렌트 수입 \$5,000/m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특적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컨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 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펜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점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이익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뉴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텍스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C
·시간: 일요일 아침 9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 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주 1회 90분 수업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깃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 매매〉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 8,000 / 10,000 / 12,000 (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트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모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자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피아노(Everett) Free로 드립니다.
필요한분 문자주세요.
Tel.571-668-0805

허리 운동하는 꾸꾸리 싸게 팝니다
사용설명서 있음 \$50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켄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랍 (스테인) 3-9 PS 7개
-요엑스 6-9 PN 6개
240-475-4166

2024년형 Hyundai Tucson 5700마일
유학생 귀국사정으로 매매 \$27000
상태 최상
703-989-9828

귀국관계로 빅세일
런닝머신 \$150, 이탈리아 가죽 소파 3명
\$200, 등산 배낭 신발, 스틱, 알카라인
싱크대용 정수기 기타 등등
703-597-8909

골프채 아이언 샷 Surpass 3-9번까지 7채
NICKENT 4-9, P, S 9채
240-475-4166

중고 승용차 삽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베레스 4 스타, Regular, 9, 5도
아이언셋: 베레스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구독: 703-281-9660,1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덕,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익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헬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올라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유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주책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Frank: I was thinking about buying one of those large flat screen TVs.
프랭크: 저기 보이는 대형 평면 TV를 살까 해.
Ed: They're really nice. Are you going to buy one soon?
에드: 좋은데, 금방 살 거야?
Frank: No, I thought I'd hold off on buying one until the prices come down.
프랭크: 아니,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 생각이야.

Ed: Well shop around before you buy one.
에드: 그럼 사기 전에 쇼핑을 여러 곳 해봐.
Frank: Oh I will.
프랭크: 아 그래야지.
Ed: You can get a good deal if you look around instead of buying the first one you see.
에드: 물건 처음 보자마자 사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둘러봐야 싸게 살 수 있어.
Frank: I plan to.
프랭크: 그럴 계획이야.

Ed: I'm thinking about buying a new computer
에드: 난 컴퓨터를 새로 살까 하는데.
Frank: Really?
프랭크: 정말?
Ed: Yeah, The one I have is so old.
에드: 그래, 지금 쓰는 건 너무 옛날 거야.
기억할만한 표현
▶ the prices come down: 가격이 떨어지다
"I bought my new DVD when the prices c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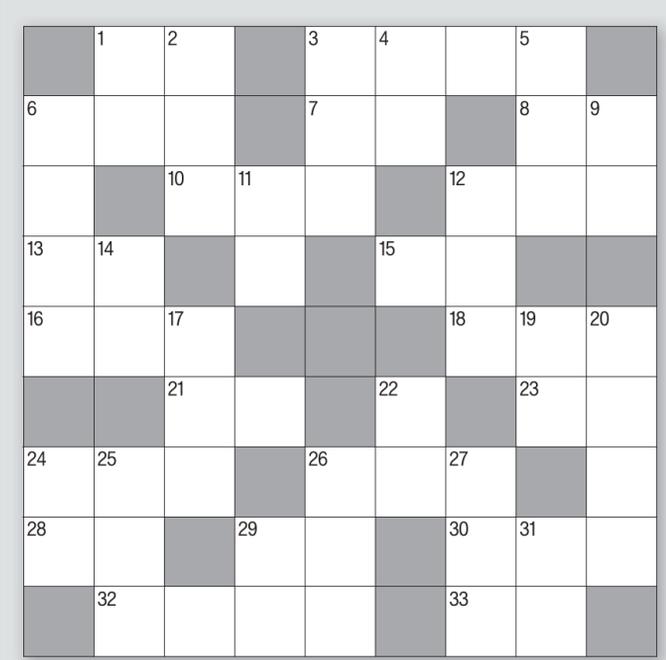
down."
(새 DVD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샀습니다.)
▶ shop around: 가격이 싼 곳을 찾아 여기 저기 쇼핑하다
"I shopped around before I bought the car I'm driving now."
(지금 모는 차는 여기 저기 쇼핑을 하고 샀습니다.)
▶ get a good deal: 싸게 사다
"She got a good deal on a new stove and refrigerator."
(그녀는 새 스토브와 냉장고를 싸게 샀습니다.)

hold off (on doing something); 미루다, 연기하다

Frank is talking to his brother Ed.

(프랭크와 에드 형제가 얘기한다...)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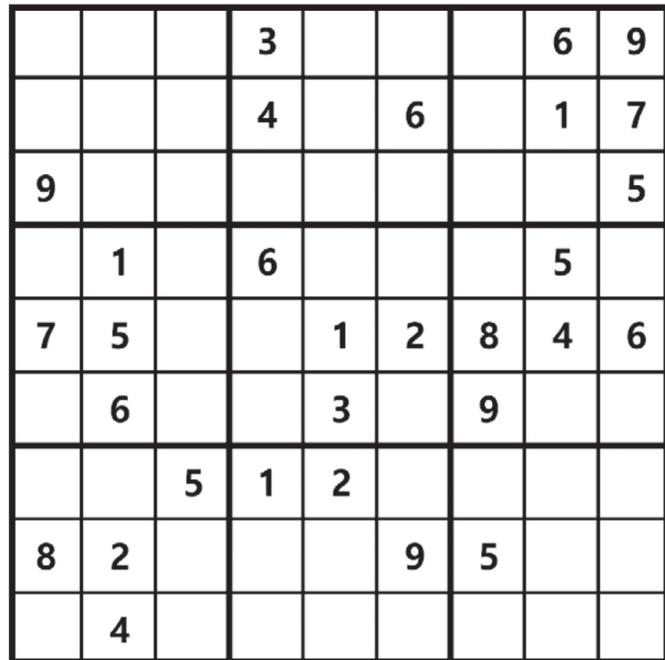
가로열쇠

(1)청각 장애인들 사이에서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 전달 방법 (3)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하여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 (6)코가 큰 사람 (7)사람에게 잡힌 생물을 놓아주는 일 (8)문인, 학자, 예술가 등의 본이를 외에 따로 지어 부르는 이름 (10)대, 갈대, 수수깡, 싸리 따위로 받쳐림 엮거나 결어서 만든 울타리 (12)한번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 죽은 사람 (13)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 (15)입안에 도는 침. 삼겹살 구이를 보자 저절로 ~이 나왔다 (16)돈이 잔뜩 들어 있는 이것을 깔고 앉아 있으면 좋겠조 (18)고치 속에 들어 있는 몸 (21)끼니 사이에 음식을 먹음. 군것질 (23)털과 뼈. 무서운 이야기를 듣자 ~이 송연했다 (24)실을 +자 모양으로 엮갈리게 놓는 수. 크로스스티치. 고모는 시집가기 전에 ~로 여러 가지 베갯잇을 만들곤 하였다 (26)해수욕장에 이것이 많이 세워져 있지요 (28)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29)쌍으로 된 생선의 알상자 (30)봉화를 올리던 독 (32)용과 범이 서로 싸움. 강자끼리 서로 싸움 (33)머리털을 깎아 다듬음

세로열쇠

(1)주문을 받음. 23조원이 넘는 규모의 카타르 LNG선 ~를 파냈다고 한다 (2)어린이에게 등에 업히려는 뜻으로 내는 소리 (3)소나무 열매의 송이 (4)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5)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사이. 그는 오른손 ~로 닭의 날갯죽지를 거머쥐고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6)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돈. 동네 불량배들이 초등학교생들의 ~을 빼앗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 **미운미끼** (9)물건 따위를 팔기 위하여 손님을 부름 (11)언니와 여동생 (12)밤에 잠을 자지 않고 살피고 지키는 사람 (14)동서남북 네 방위 (17)돌이 많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시냇물 (19)시위운동.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 (20)튼튼한 체격이 건장하고 큼 (22)파랑과 빨강의 중간색 (24)일꾼을 직접 감독하는 우두머리 (25)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26)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데 쓰는 바가지 (27)나이가 어리고 촌스러운 티를 벗지 못한 사람 (29)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찢려서 (자) 입은 상처 (31)신변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 그녀는 갖은 정성으로 병 ~을 했다

스도쿠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① 워싱턴 중양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Card Info)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Card back 3 digits)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Application address)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qft.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대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경(경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안내광고
중앙일보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기통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치마 샵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홀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가격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관 도안역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1.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신학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 2.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
- 3.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New York, Chicago, Los Angeles, Atlanta, Washington DC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